



Became naver PILIPINAS

1. 마닐라로	
▪ 2010년 1월 6일 (수)	2
▪ 2010-1-7(목)	3
2. 보라카이	
▪ 2010-1-08(금)	5
▪ 2010-1-9(토)	7
▪ 2010-1-10(일)	10
3. 보홀 DIY 투어	
▪ 2010-1-11(월)	12
▪ 2010-1-12(화)	14
▪ 2010-1-13(수)	17
4. Cebu에서의 3일	
▪ 2010-1-14(목)	20
▪ 2010-1-15(금)	22
▪ 2010-1-16(토)	24
5. 푸에르토프린세사	
▪ 2010-1-17(일)	28
▪ 2010-1-18(월)	32
6. 엘 니도 (Bacuit Archipelago)	
▪ 2010-1-19(화)	35
▪ 2010-1-20(수)	36
▪ 2010-1-21(목)	41
▪ 2010-1-22(금)	44
▪ 2010-1-23(토)	46
7. 코론 (Busuanga Is.)	
▪ 2010-1-24(일)	49
▪ 2010-1-25(월)	51
▪ 2010-1-26(화)	54

1. 마닐라로

■ 2010년 1월 6일 (수)

2년간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다시 떠난다. 그동안 집을 사서 김포로 이사 와 경황이 없기도 했고 여행이 생활처럼 반복되는 것이 식상하기도 하여 중지했었다. 아, 집 사는 것 땀에 돈이 없었던 것도 사실 큰 이유 중 하나구나.

오후에는 물냉면을 사먹고 산마을학교에 가서 해안이를 데려왔다. 집을 정리하여 김밥을 싸고 택시를 불렀다. 폭설이었던 눈이 그나마 그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얇은 반팔 옷부터 몇 겹을 껴입고 맨 위에 바람막이를 입었다. 여름 청바지를 입어 다리가 서늘하다. 짐이 되지 않고 유사시에 필리핀에서도 입을 수 있어야 하나까 최대한 호환성 있는 옷들 뿐이다. 모두들 떨리는 것을 잘 참으며 택시로 통진읍, 다시 버스로 북변터미널에 도착했다. 이 추위에 이 옷차림과 여름 샌들은 견디기 쉽지 않다. 게다가 버스는 남편이 알아본 시간과 약간 달라 추운 곳에서 좀 기다렸다. 다행히 가격은 싸다.

1시간 20분 만에 공항에 도착. 늦어질까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7시쯤 엄마를 만났다. 비행기는 30분 연착되어 10시에 출발했다. 좌석은 모두 미리 지정해 놓아 편리했다. 물은 물론 반입금지인데다 사먹어야 하는 세부퍼시픽, 컵라면도 비싸다. 여행의 꽃인 기내식이 없어 모두들 아쉬워했다. 잡지를 보다 하나 둘 잠이 드는데 남편만은 부영이. 안쓰럽게도 불편하니 잠을 못 이루는 거다. 그래도 직항에 가격도 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한다... 우리 형편에 직항이라니 호사스러울 뿐이다.

4시간 후 마닐라 시간으로 1시에 도착. 숙소에 픽업전화를 할까 하다 택시타기로 결정. 나오니 허걱할 정도로 더위가 엄습한다. 서

서 매미 허물 벗듯 솔솔 벗어 제껴 모두 반팔 차림이 되었다. 가까운 거리여서 150페소 정도 나왔는데 잔돈이 없어 200을 주니 기사가 날로 먹는다. 아깝지만 할 수 없다. 타운하우스 호텔은 저가 게스트하우스다. 남편이 예약을 했으나 방이 남은 것이 별로 없어 엄마와 해안은 가장 좋은 에어컨 방을 주고 우린 선풍기방에 들었다. 엔틱풍의 특색있는 방들인데 말라카에서는 이런 방이 무지 비싸 잘 엄두도 못냈었지. 오래 된 고가구나 침대? 뭐 꽤 낡은 그런 분위기다. 남편은 더워서 어쩔 줄 몰라한다. 엄마방에는 온수기가 되어 거기서 다 샤워하고 올라왔다. 우리의 귀중한 현미김밥을 한줄씩 사이좋게 나눠 먹고 가게부쓰고 잠잘 준비를 한다. 내가 안 좋아하는 선풍기 바람에 자아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쉬운데 남편은 정 반대로 땀이 줄줄이다.

■ 2010-1-7(목)

간밤의 선풍기 바람에 목이 칼칼하다. 이 방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의 방인데 꼭대기라 무지 덥다. 더위 안 타는 나도 땀이 나는데 남편이 고생했다. 짐을 챙겨 엄마방에 다 넣고 4인실 에어컨으로 방을 바꾸기로 했다. 10시에 나가서 길을 따라 일단 걸어 보았다. 길이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넓고 걸을만 하다. 아침녘에도 차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대로에 차가 가득하다. 지하철을 타겠다고 앞장 서서 가던 남편은 덩기도 하고 좀 다운된 상태여서 판단이 안되는지 포기했다. 대신 택시로 'mall of asia'란 곳에 갔다. 택시비가 저렴하여 좋고(50P), 물은 일단시원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그렇듯 슈퍼와 쇼핑센터가 뭐 별거겠나. 태국보다 훨씬 못한 시설을 최근에 지은 거다. 슬쩍 살펴보고 엄마는 용돈하실 겸 원화를 약간 환전했다. 식당도 거의 프랜차이즈점, 정크 푸드들이다. 겨우 필리핀 현지식을 먹을 수 있는 깔끔한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물가가 짐작되지 않으니 가격이 어떤지 가늠도 안되고 뭘 시켜야 할지 몰라 헤맸다. 남편은 나가자고 하고 엄마는 첫 개시 손님이니 먹어줘야 한단다. 결국 야채볶음, 생선튀김, 견과류 돼지고기

볶음과 밥 2개를 모두 정말 맛나게 먹었다. 게다가 얼음 가득 물은 공짜. 속속 손님이 드는 걸 보면 우리의 선택이 좋았다. 첫 음식 먹기에 만족하고 엄마가 가져온 가루 냉커피도 시원한 물에 타 먹었다.

다시 택시로 국립박물관. 택시는 값이 싼데다 우리는 네 명이니 오늘은 마구 타기로 했다(125). 박물관이 공사 중이어서 호세 리살 공원만 둘러보고 산 안드레스 마켓으로 향한다. 제법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은 곳곳의 작은 식당들에서 맛난 음식도 판다. 요런 곳에서 먹어도 좋았을텐데. 기웃거리며 구경하면서 걷는다.

마닐라는 어느 도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볼것 없음, 공허함이 느껴진다. 이룸도 초현대적인 '메트로마닐라'면서 이게 뭔가? 그냥 뻥튀기로 마구 만들어진 도시느낌이다. 게다가 태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낡은 느낌들. 두번 오고 싶지는 않을 듯한 이곳에서도 좀 있어 보면 사람냄새가 나려나? 나름의 삶이 있겠지. 하늘은 곧 스콜을 쏟을 듯하면서도 겨우 참는다. 피부으면 어딘가에서 비를 그으며 기다리는 것도 운치있는 일. 예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스콜을 만났을 때도 멋졌다. 지금이 건기여서 그나마 서늘한 편이라 비가 결국 안오는가 보다.



산안드레스 마켓. 너무나 빈약하다
이곳의 어린 아이들은 구걸을 하기도 하지만 많이 달라 붙지는

않는다. 예쁜 얼굴에 차림새가 추레하다. 길은 매연이 심한 편이다. 그래도 인도 같은 곳에 비하면 여긴 덜하다. 오늘따라 바람도 불고 흐려서 아주 좋다고 엄마는 만족해 하신다. 열대지방 치고는 걷기에 좋은 날이다. 가는 도중 로빈슨 마켓이라는 곳에 잠깐 들렀다. 더우면 가끔 이렇게 쉬어 가야 한다.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물과 술을 샀다. 물가는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고 싸지 않다. 필리핀의 술은 10년전 패키지 여행 때도 남편이 좋아했던 터라 천원 남짓한 럼주를 한병 샀다.

산 안드레스 마켓은 약간의 과일가게와 허름한 내부 시설로 실망스러웠다. 게다가 과일값도 마트에 비해 비싼 편이다. 결국 길 건너 편의 마트에 가서 망고, 바나나, 커스터드 애플 같은 과일을 사고 택시로 숙소 부근에 왔다. 오늘은 잠을 잘 못잔 첫날인데다 내일 6시 비행기를 타야한다. 거대한 물이 보이는 곳에 내려 남편이 헤메려는 찰나, 엄마가 아침에 산책 나온 곳이라며 앞장서서서 쉽게 숙소를 찾았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방을 옮기고 남편과 나는 다시 그 마트로 가서 과자와 맥주를 샀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외국인이 거의 없어 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작은 골목 시장의 자잘한 생선, 토막쳐지는 참치에서 흐르는 피가 생경하다. 짐볼 타는 꼬마, 사람들의 말소리, 채소 가게들의 모습, 우리가 잠깐 현지인이 된 느낌이다. 육교 아래에서는 오징어 튀김, 어묵 튀김을 팔고 위에서는 굴, 생선, 잡화류 등을 늘어놓고 판다. 비록 마닐라가 볼 것도 없고 시끄러우며 매연이 많지만 그래도 열대의 하루를 즐겼다.

숙소에 와서 씻고 저녁은 이곳에서 주문했다. 만오천원 정도의 식사인데 점심보다 못하고 좀 짜다. 망고도 맛은 그닥이고 바나나와 커스터드 애플 종류의 과일은 좋았다. 숙비와 내일 아침 택시비를 내고 나니 돈이 떨어졌다. 남편은 잠시 자고 있고 해안은 철학강의를 아빠폰으로 들으며 아래 식당에 가 있다. 캐나다 할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주소를 적어 오더니 할머니가 선물로 준 인스턴트 냉커피와 차 티백을 선물로 들고 또 가버렸다. 남편을 깨워 물에 담귀 둔 산미구엘 맥주(26 정도)를 마시고 일찍 자야 한다. 남

편은 아직 열대에 적응이 덜 되어 있다. 나머지 식구들은 나를 잘 지내고 있다.

2. 보라카이

■ 2010-1-08(금)

이층침대 위가 워낙 부실하여 나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워낙 엔틱한 터라 펍 꺼져 있는데다가 중간 부분이 툭 튀어 나온 것이 잠자기가 영 불편하다. 11시 반에는 과연 잠을 잘 수 있나 하는 회의가 들면서 가서 따져서 1인분 비용은 환불받고 싶을 지경이다. 이층침대의 아래에서 자는 남편과 같이 누워 칼잠이라도 자볼까 했지만 부서질지도 모른다하여 포기했다. 남편이 자기 베개를 허리에 넣어주어 조금 누울 만 했다. 게다가 모기인지 뭔지가 어찌 극성스럽게 물어대는지 굶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 이게 반대인지 벼룩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고 1시간 간격으로 깨어 시간을 본다.

2시 50분에 일어나 대략 준비하고 식구들을 깨웠다. 숙소 기사와 자가용으로 공항에 간다. 주택가의 턱에 세번이나 차 바닥이 긁힌다. 기사가 무겁고 킬킬한 소리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Heavy!!" 우린 크크대고 미안해하며 웃는다. 아! 공항에 너무 빨리 왔다! 북극에 온 듯 심하게 도는 에어컨에 놀라 모두 바리바리 옷을 꺼내 꺼 입는다. 호환성있는 옷들이 유용하다. 앞으로 2시간이나 남았네... 졸아 보려다 불편해서 포기하고 일기를 쓴다. 담부터 국내선은 이리 일찍 오지 말아야지.

제스트에어의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달려 양증맞다.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 2인씩 앉는다. 역시 저가라 사람들이 꽉찬다. 타자마자 그냥 잠이 든다. 그런데 이 항공사는 무료로 사과주스를 준다! 물어뜯기 힘들긴 하지만(이곳 저곳에서 물어뜯다 너무 안되니까 새어나오는 웃음들) 대박 맛있다. 종이컵은 나중에 쓰려고 고이 아껴 두었다. 1시간 정도 날아 칼리보에 도착했는데 비가 제법 쏟아진다. 주스 준 것도 고마운데 비행기 꼬무니 쪽 부터 내리는 사람들 하나 하나에게 우산을 퍼 준다. 짐 찾는 곳의 돌리는 기계가 고장이 나

서 짐이 돌지 않는다. 입구에서 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손으로 돌려 보기도 하고 웃으며 즐겁게 짐을 찾았다.

밴이 보트비까지 1인당 200을 불러서 탔다. 냉방이 너무 추웠지만 경치는 탄자니아의 마테마 비치 가는 길처럼 아름답다. 깊은 숲과 야자나무들, 넓은 논들이 풍요롭고 작은 도시도 평화로우며 깨끗하다. 마닐라와는 천지차이다. 엄마는 마닐라의 대기오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과는 달리 싱싱하고 보기 좋다고 하신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1시간 20분 가량 걸려 까띠끌란에 도착했다. 보트비는 25인데 환경보호비와 부두이용료가 합쳐서 추가로 인당 100씩이 더 나간다. 엄마가 환전하여 맡긴 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남편이 빼기 청년을 만나 따라가기로 한다. 보트로 잠깐 만에 보라카이에 왔다. 다시 밴을 타고 해변으로 달려와 'madid's Inn'에 왔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새 건물에 있는 방 둘을 잡았다. 마테마비치에서 처럼 문 앞 발코니에 의자와 작은 탁자가 있다. 에



맨 위에서부터 비행기안, 공항에 내려서, 작은 칼리보 공항, 공항밖에 대기한 밴들, 칼리보에서 까띠끌란 가는 길

어컨 방을 1,500을 불렀으나 깎아 1,300씩 하고 방 하나는 냉장고가 없어 돈을 2,500에 잡았다. 좀 작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깔끔한 방이다.

돈이 떨어져 환전을 하고 체인점 필리핀 밥집에 가서 여러가지 음식을 시키고 550쯤 먹었다. 푸짐하고 배부르며 맛도 좋다. 밥을 햄버거처럼 한 덩어리씩 싸서 주는게 신기하다. 스킨이 쏟아져 구경하며 먹는다. 보라카이도 가게들이 해변 가까이로 밀집해 들어오고 방대하게 퍼져 간다. 해변의 산호가루가 자꾸 줄어 해운대처럼 될까 걱정스럽다.



필리핀 전통음식 패스트푸드 안독스

숙소에서 재빠르게 수영복으로 갈아 입고 맨발로 해변을 가로질러 바다에 들어 간다. 날이 흐리지만 물은 무척 투명하다. 그림 속에서 보는 또는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환상적인 해안이다. 야자 나무가 길게 해안선을 따라 드리우고 있고 색색의 바다와 배가 드리운 풍경들을 보니 보라카이에 왔다는 게 느껴진다. 남편은 물이 좀 차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좋다고 아이들처럼 즐거워 한다. 수영도 하고 물에서 눈도 떠 보았다. 엄마는 꼬마들과 공놀이도 하고 수영도 가르쳐 주며 재미나게 보내신다. 모든 일이 오늘은 일사천리로 매끄럽게 전개되어 밥을 다 먹고도 12시 이전에 바다에 들어왔다. 특히 바다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수영하는 기분은 특별하

다. 비가 물 위에서 구슬처럼 퐁퐁거리며 구르며 떨어진다.

실컷 놀다가 걸어서 서쪽 해변으로 갔다. 끝 쪽은 좀 더 한가하고 난개발이 덜 되어 있어 고즈넉하다. 10년 전에 아빠와 왔던 장소를 찾으려 했던 엄마는 모든 것이 너무 변해 찾는 것을 포기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하염없이 아빠가 바라 봤더라는 얘기를 몇 번 이고 하신다.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으니 그때는 몸이 안 좋으실 때였다. 엄마도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가 보다. 해안가와 엄마는 숙소에서 먼저 가고 우리는 피로가 몰려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깐 잔 듯한데 남편은 너무 곤하게 잘 잤단다.

숙소 부근에 와서 바다에 한번 더 들어간 후 돌아와 씻었다. 둘이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 갔다. 저녁에는 필리핀식 뷔페를 먹을까 해물을 먹을까 살펴 보았다. 나중에 뭘 먹을지 같이 와서 결정해야겠다. 돌아 오며 내일 호핑투어를 1인 700에 예약했다. 10시에서 4시까지 이고 점심은 뷔페이다.



숙소에 와서 잠시 자고 식구들 모두 나갔다. 해변 쪽으로 의자와 상을 내고 뷔페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져 밤풍경은 낮과 다르다. 결국 사람이 많은 해물 뷔페집에서 먹기로 하고 들어갔다. 게가 푸짐하고 굴, 조개, 고기 등을 곁는다. 음식은 모두 깔끔하고 맛있다. 굴과 조개는 살짝 구어 보드랍고 싱싱하다. 특히 게는 살과 알이

꽤차고 잘 요리하여 풍미가 좋아서 어느 때보다 많이 먹었다. 수박까지 여러 접시를 늘어 놓고 모두 정신없이 많이 먹었다. 1인 250이니 값도 좋다. 먹고 산책을 하다가 숙소로 와서 커피를 마시고 망고를 먹었다. 해안가는 남고 다시 나가서 멀리까지 걸어갔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다. 물 4리터 짜리를 사고 숙소로 왔다. 벌써 9시가 넘었다.

■ 2010-1-9(토)

간밤에는 편한 침대에서 잘 잤다. 아침 7시도 안되어 엄마는 산책을 나가셨다 하니 나도 혼자 해변을 따라 성모상 있는 곳까지 갔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벌써 바다에 들어간 이들도 있으나 별 볼 것이 없다. 중국인들이 산호 조각을 열심히 챙겨 줍는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윗쪽 길로 올라가니 매연 뿜는 트라이시클이 많이 지나간다. 냄새는 싫지만 이 길을 경계로 위는 현지인들 지역이어서 혹시 먹을 것 파는데가 있나 살피며 걷는다. 아침을 챙겨 먹어야 오늘 식구들이 하루 투어를 버티니까. 작은 구멍가게에 다행히도 수박과 과일들이 보인다. 바나나를 15에 파파야를 50에 샀다. 돈이 100 밖에 없어서 80정도의 수박은 포기한다. 이런 걸 찾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바로 옆 가게는 더 커서 몽키바나나 한다발을 15에 또 샀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게다. 그래!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먹을 걸 팔고 있었던 거다! 해변 지역의 관광객 물가는 물론 우리나라 수준이다. 어제 망고 3개를 100에 사지 않았던가! 도대체 그 많은 열대 과일들은 분명 쌀 텐데 어디 박혀 있는지 마음이 답답했었다. 그래도 어제 산 망고는 달콤 새콤하고 큰 것이 맛도 좋았다.

Dmall 근처의 윗길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다. 나팔꽃 비슷한 것이 호수가에 잔뜩 피어 있고 아저씨가 작은 고동 비슷한 걸 망으로 잡는다. 길가 빵집에서 꼬마 머핀 4개를 20에 샀다. 빵집의 식빵이 60이니 만드는 빵은 우리나라 수준의 가격이고 현지인들은 가게에서 제품으로 나온 걸 사는 듯하다.

Dmall로 내려오는 길에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시장통을 찾았다! 이 사람들도 분명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시장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과일들이 그득하다! 망고도 많고 고기, 생선, 야채 등을 팔고 있으며 작은 음식점도 있다. 여기서 앞으로 아침 과일을 사면 된다.

재빨리 숙소로 와서 아침을 먹자고 불렀다. 바나나도 작고 맛있지만 파파야가 상큼하고 보드라운 것이 모두들 맛있다 한다. 어제

남은 망고도 잘 먹었다. 머핀은 버터를 많이 쓰지 않아도 부드럽고 좋았다. 엄마는 성모상을 지나 절벽의 먼 해변까지 다녀 오셨다는데 그쪽이 진짜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하신다. 남편은 내일 반대쪽 해변에 가보자고 한다.



샌드아트. 어느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디몰 팔랑케

커피까지 챙겨 먹고 남편과 시장에 가서 저녁에 먹을 파파야

(50)와 망고(1kg 70)를 샀다. 이곳 시장통의 식당이 싼데 여기에서 저녁을 먹어 볼까? 남편은 어제 저녁의 해물뷔페가 가격이 250 밖에 안되는 이유는 하루 종일 많은 레스토랑에서 팔다 남은 해산물을 정리하기 때문에 싸다고 논리에 나와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어제 밤의 게 생각이 다시 솔솔 난다. 정말 살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침 9시 이니 40분쯤에 나가야 한다. 귀중품은 숙소에 두고 45분에 출발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였다. 해안과 남편이 모자가 없어 밀집모자 비슷한 것을 사려다 엄마가 비싸다며 사지 말자고 하신다. 사실 이 모자는 금방 망가지고 들고 다니기 쉽지 않다. 또 스노클링을 하면 어차피 모자는 쓰지 않으므로 안 샀다.

큰 배로 20여명 남짓의 사람이 출발하여 앞 바다로 나가더니 파도도 치는데 들어가란다. 피피섬 처럼 잔잔한 호수같은 바다여야 하기가 좋을텐데 여기는 들어가서 다녀 보니 쉽지가 않다. 게다가 몇 개의 산호가 겨우 살아 흐느적거리고 거의 다 죽어 안타깝다. 파도가 심하게 출렁여서 물도 좀 먹고 자꾸 멀리 떠내려가려고 한다. 힘이 들어 나중에는 지쳐 버렸다. 호기롭게 앞장서 들어 갔는데 결국 엄마의 부축을 받고 올라 오는 신세가 되었다. 해안도 잠깐 보고 올라오고 남편도 힘들단다. 엄마가 가장 씩씩하고 활발하다.

배에 올라 보라카이 남쪽의 Laurel섬에 갔다. 입장료 200을 내고 들어가는 일주 코스가 있는데 우린 돈도 안 가져 갔고 남아서 놀고 싶었다. 1시간 정도 바다 주변도 살피보고 조개껍질도 모으며 한가롭게 보냈다.



배안에서



로렐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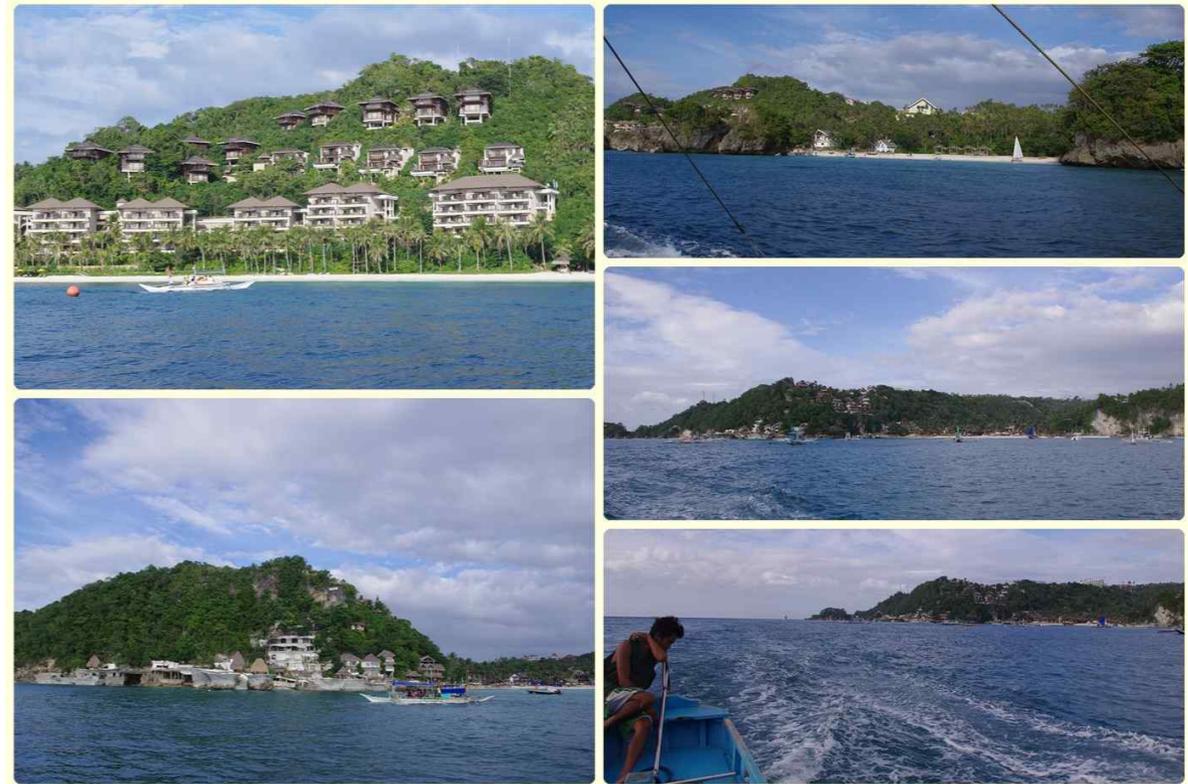


작열하는 태양

엄마와 비단고동 같은 예쁜 껍질을 들여다보며 서로 신기해했다. 섬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 파도에 쓸려 아래부터 깎여 신기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파도가 심한 곳이어서 이렇게 되었다. 잘 쉬다가 배를 타고 보라카이 남쪽의 해변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 뿐 아니라 여러 팀이 함께 먹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반찬, 과일 등이 다양하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구운 닭고치가 있나..." 하며 몹시 감탄했다. 시골닭 같지 않게 어떤 소스에 재워 구웠는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모두 아주 많이 먹었다. 특히 닭순이인 해안은 정신없다. 작은 새우요리도 맛있고 음료수도 제공하는 참 푸짐한 뷔페였다. 이런 일일 투어 중 최고로 맛있는 점심식사였다.

식사 후 배가 바로 앞바다로 좀 더 나가 악어섬 부근에서 다시 물에 들어 갔다. 살아서 출렁이는 보라색, 노랑색 산호도 좀 있지만 역시 죽은 것이 기본이다. 파도가 세서 오래 있지 못하고 지쳐 나왔다. 엄마는 바다에서 물찬 제비다. 빌린 오리발도 엄마에게는 날개와 같다. 우리가 헤메면 와서 도와 주시고 멀리까지 자유롭게 나가 끝까지 바다에 있다가 오른다. 덕분에 황금색 물고기며 꼬리가 긴 파랑고기까지 아름다운 애들을 많이 봤다며 아주 흐뭇해 하신다. 엄마가 항상 가장 좋은 걸 본다. 해안은 몸만 담갔다 바로 올라 왔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었다. 그런데 직원이 스노클링 입수비를 두당 20 씩 받고 다녀서 영수증을 보니 시청에서 발행하는 거다. 찝찝했지만 3인분을 냈다. 죽은 산호가 대부분인데 뭘 봤다고 내라는 건지... 옆에 앉은 외국인애도 황당해 한다. 다시 배는 우리 숙소를 지나 호화빌라들이 있는 북쪽까지 올라갔다. 섬을 거의 한바퀴 도는 셈이다. 다시 되돌아 스테이션 1에 한번 서고 원래 자리에 돌아왔다.

해안은 숙소에 빨리 가서 씻고 싶다고 해서 모든 짐을 다 맡겨 가져가게 하고 우리 셋은 물속에서 해염도 치고 걷기도 하며 노닥노닥 숙소 쪽을 향했다. 남편과 코와 귀를 막고 물에서 눕는 연습을 서로 했다. 숙소 부근에서 남편이 먼저 들어 가고 엄마와 해가 질 때까지 물속에서 놀았다. 황금빛 선을 그으며 서서히 떨어지는 해를 물속에서 보는 것도 운치가 있다. 엄마 덕분에 물위에 편안히 눕는 법을 배웠다. 신기하다. 그렇게 편안히 누워 있을 수 있다니... 어제는 물 속에서 눈 뜨는 것도 배우고 수영을 더 편히 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아마 다이빙을 한다면 우리 중에서 엄마가 제일 잘 할 것 같다. 남편이 이미 빨래를 해 놓아 씻고 나머지를 빨아 넣었다. 모두 배가 고프지 않아 간단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식구들과 재래시장 앞 슈퍼에서 주전부리거리도 사고 큰 수박을 시장에서 샀다. 필리핀 체인점 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와서 7kg 짜리 (135) 수박 반통을 정신없이 먹었다. 우리 것과는 달리 작은 씨가 많지만 자연에 가까운 수박이 달고 훌륭하다. 오늘은 너무 실컷 물에서 놀아 일찍 자야겠다.



보라카이 북쪽 리조트단지

■ 2010-1-10(일)

아침에 새로운 숙소를 알아봐야 하기에 엄마를 깨워 7시에 나섰
다. 새벽에 산책 가시려다 너무 피곤하여 다시 누우셨단다. 어제 스테이션3 에서 수영을 하고 와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다. 그러면서도 아침 수영을 하자고 하니 참 대단한 기력이다. 인간에너자이저다. 우리 기력의 2배 정도 되시는 듯하다. 해안이의 에너지는 우리의 절반이다. 바닷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결혼식을 하나 했더니 배들이 멀리서 행렬을 지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거다. 맨 앞의 배 위에 예수 상 같은 것을 안은 사람이 있고 뒤의 배 중에는 시끄러운 음악과 춤을 추는 사람들이 탄 배, 다시 여러 척의 배가 뒤를 따른다. 처음에는 선상 미사를 보나 했다. 성모상 있는 곳 부근에는 여러 팀(아마도 부족의 모습을 재연하는 듯)의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모여 대기하고 있다. 드럼, 실로폰, 작은 북 등을 일정한 가락으로 반복하여 두드리며 춘다. 악어로 분장하여 온 몸을 초록으로 칠한 사람, 흑인처럼 시커먼 분장을 한 사람 등 다양하다.

'아티아티한 축제'라고 예수를 기리며 광장에서 출발하여 하루 종일 이 부근을 돈다고 한다. 이 곳에 숙소를 정해볼까 하여 들어가 물어봤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3,500p 정도이고 수영장 없는 작은 리조트도 90달러에 1인 25 추가이니 총 140달러가 방 하나의 가격이다. 그저 우리 숙소가 감지덕지 할 뿐이다. 숙소에서 아침으로 수박과 망고를 먹었다. 7kg 수박이 벌써 사라졌다. 냉장고에서 살짝 얼 지경이 되어 무척 달고 시원하다. 덕분에 물이 안 팔리고 있다.

주인에게 방을 바꿔 달라 하려고 갔는데 역시 늘상 그렇듯이 없다. 숙소 옆의 Eriko's house 의 직원에게 방이 있는지 물어 여주인을 만났다. 바로 맞은 편의 큰 방 가격이 2,500 이란다. 깎아서 2,300에 주겠다고 한다. 우리 숙소는 언니가 하는 곳이란단다, 같은 스타일의 방으로 바꿔 준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4인

실에 냉장고, 부엌까지 달린 큰 방을 2,000에 주겠다고 한다. 9시에는 사람이 나간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찌면 오늘은 우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시장의 큰 돼지고기를 사다 소금을 빌려 야채와 볶아도 좋겠다. 하루 정도는 같이 자는 것도 좋다. 오늘은 전망대와 반대편 해변에 가려고 한다. 론리플래닛 책이 너무 부실해서 우리 둘다 기가 막혀 하고 있다. 갈 곳에 대한 정보가 지역만 딱 나와 있고 내용이 없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어찌면 필리핀은 바다 말고는 정말 별로 문화적으로 볼 것이 없는가 보다. 이 축제도 전에는 전통의상을 입고 성대했다는데 지금은 간소화 되어 볼 것이 없다고 한다.

왜 필리핀은 이런걸까?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어찌면 섬으로 흩어져 있어 부족 단위로 오래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문화적인 동질감이 부족하여 식민지배나 독재정권의 지배가 쉬웠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적인 것들도 별로 없어서 오직 바다 말고 이렇게 볼거리가 없는 나라는 정말 처음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늘 뭘 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골라야만 했다. 여기서 그저 폭 쉬는 것으로 여행 테마를 바꿔야 하겠다.

바꾼 숙소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훨씬 높은 급의 숙소다. 취사도 구가 다 준비되어 있어 직접 만들어서 점심을 준비하기로 한다. 드물게 주어지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남편과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쌀 1kg(36), 기막히게 훌륭한 생삼겹 돼지고기 반근(85), 각종 야채와 마늘, 생강, 달걀을 샀다. 이렇게 해 먹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기름과 간장도 작은 봉지에 넣어서 판다. 남편이 밥을 하고 나는 달걀을 삶고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었다. 재료들이 모두 싱싱해서 설탕을 좀 얻어다 넣으니 훌륭한 요리가 되었다. 달걀을 전식으로 먹고(싱싱하여 부드럽고 맛이 좋다) 본식은 돼지고기 야채달걀밥으로 푸짐하게 먹는다. 모두들 맛있으면서 많은 양의 요리를 다 먹었다. 내일 아침식사로 더 만들기로 했다. 1시에 숙소를 나와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루호산 전망대에 갔다. 작은 오토바이 하나로 언덕을 오르려니까 힘에 부쳐서 남편은 내려서 뛰다가 타다가 하며 올라갔다. 입장료를 1인 50씩이나 받아서 그냥 남편만 올라가 사진 찍고 우리는 남아서 주위

를 둘러 보았다. 코코넛을 사먹고 걸어 내려와서 블라복 비치에서 카이트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연 하나에 의지하여 중심 잡고 물위를 가면서 날기도 하고 돌기도 하며 갖은 모기를 다 부린다. 물에 들어가 놀려고 했던 계획은 어렵없는 일이 었다. 바람이 세서 부유물도 많고 거칠어 수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들어갔다가는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이다. 연과 보드를 다루기 힘들어서 인지 모두들 날씬한 몸이다.



화이트 비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수박도 어제 그 집에서 샀다. 오빠가 싹싹하기도 하지만 가장 싸게 판다. 오늘은 짙은 녹색의 수박을 샀다. 활활 웃어 주며 내일도 오라고 한다. 도넛을 사고 숙소에 짐을 넣어 두고는 다시 바다로 갔다. 오늘은 남편도 물 위에서 쉽게 뜨더니 배영까지 엄마에게 배웠다. 해안이도 제법 수영도 잘하고 물에서 램처럼 쉽게 떠 있다. 4시 반쯤 돌아와 씻고 빨래를 한 후 쉬었다. 오늘 저녁은 애저요리가 있는 뷔페에서 먹으려 했는데 이 요리를 빼고는 영 맛이 없어 보인다. 결국 우리가 그저께 먹었던 뷔페로 다시 갔다. 게가 작은 것 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많은 요리를 잘 먹었다. 숙소 앞 야자나무 아래가 너무 시원해서 앉아 인터넷 전화로 아버지와 누나, 영희씨에게 걸었다. 먼 곳에 쉽게 전화를 하니 신기하다. 엄마가 산책에서 돌아오셔서 수박을 쪼개 맛나게 또 먹었다. 어제 수박보다 더 맛있다. 엄마는 이 숙소가 너무 좋아 떠나기 아쉽다고 하신다. 내일 아침용 요리를 해 놓고 자야 한다.





| 3. 보홀 DIY 투어 |

■ 2010-1-11(월)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한다. 이곳은 문을 닫으면 에어컨이 안 와서 무지 더운데 불을 두 개나 켜니 완전 사우나다. 식구들이 깡깡 조용히 1시간 만에 밥을 데우고 고구마를 삶고 돼지고기 야채볶음을 만들었다. 땀이 줄줄 흐른다. 엄마는 피곤하신지 밝고 소란할텐데도 안 깨신다. 체력의 한계가 올 때도 되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다. 6시에 깨워 짐을 꾸리고 아침을 먹으니 어제 뷔페 먹은 것도 있고 해서 식욕이 날리가 없다. 여태 아침은 과일만 먹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나눠 먹어야 한다니까 잘 먹는다. 무리하여 먹다 보니 하루종일 속이 팍차고 소화가 안되어 나중에 힘들었다. 어제보다 돼지고기는 덜 맛있다. 좋은 삼겹 부위는 아침에 다 팔린다. 게다가 고추 두개를 넣은 것이 꽤 맵다.

열심히 식사하고 과일까지 다 먹은 후 6시 50분에 출발하여 건다가 트라이시클을 탔다. 항구에서 배, 다시 밴으로 공항에 2시간 반전에 도착. 공항이용료 40 밖에 안해서 좋다. 근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되는 공항시설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 그래도 인터넷이 잡힌다.



비행기는 우리만 마주보는 자리다. 옆이 비상탈출구여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 거꾸로 앉은 남편과 나는 비행기가 하늘로 계속 상승하는 동안 좀 불편했다. 완전 L자 형태의 자리인데다 엉덩이 쪽이 올라가는 셈이니 얼마나 황당한지. 서로 마주보니 특이하고 좋기는 했다. 아름다운 섬들을 구경하며 옆에 앉은 스튜어디스에게 어디가 좋으냐고 묻기도 하고 앞으로 갈 곳을 의논한다.

세부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모알보알에 가기위해 버스터미널에 가자고 했다. 기사아저씨는 말이 아주 많은 분였다. 덕분에 세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모알보알은 단지 다이버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보홀섬을 추천하셔서 급작스레 항구로 방향을 바꿨다. 30분 후 Weesam 회사의 2시 배가 있었다.

1시간 45분 걸려 보홀의 딱빌라란에 도착했다. 기사 아저씨 덕분에 갑자기 여기를 오게 된다. 걸어서 Hotel la loca 에 들었다. 이곳 최초의 호텔이지만 지금은 외관이 좀 낡아있고 규모는 아주 크다. 그래도 수건과 비누, 수영장이 있으니 우리 여행 중 이런 호사는 감지덕지이다. 더워서 일단 모두들 수영을 하러 갔는데 헉! 날벌레가 많이 떠 있다. 저어하는 해안과 남편을 두고 과감히 엄마가 수영을 하니까 하나씩 겨우 들어간다. 해엄을 치면 날벌레가 옆으로 밀려나는 지경이다. 주변 경관은 나무도 많고 아름답다. 더위만 식히고 나와서 재빨리 옷을 갈아 입고 시내를 향해 걸어본다.

지나가던 지프니가 빵빵거리며 타라고 해서 물으니 시내 간단다. 7페소 짜리 지프니를 드디어 타는 체험, 편하고 좋다. 다만 매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고통이 있지만. 딱빌라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골이 아니라 큰 도시이다. 큰 시장과 수퍼도 가까운 곳에 있었고 5시가 넘었는데 거리에는 웬 학생들이 그리도 많은지 각종 교복의 행렬이 넘친다. 대학과 학교가 수두룩한 것이 활기차고 좋아 보인다. 시내에 내려 작은 빵집에 갔는데 가격이 3에서 5정도 한다. 맛은 그것에 상응하나 이런 가격이라니 놀랍다. 어디서 투어를 예약할지도 찾을 수가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가자고 하고 늦기 전에 시장통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한다.

거리를 걷는 것은 복잡한 차와 트라이시클, 매연 때문에 쉽지 않

다. 시장 가는 길, 보홀대학교 앞의 밥집에서는 뷔페 형태의 다양한 반찬을 판다. 들어가 9가지 정도 반찬을 고르고 가방에 담아간 밥을 꺼내 같이 먹었다. 가격이 겨우 113이다! 서비스로 고기맛 국물을 줘서 맛있게 먹었다. 현지인들은 보통 반찬 1개를 시켜 수북한 밥 한접시와 함께 먹는다. 잠시 미용실에서 들러 엄마와 남편이 머리를 다듬었다. 꼼꼼하게 자르는 솜씨가 좋다. 아침식사용 바나나와 망고, 해안이 생일 축하용으로 빵을 샀다. 수퍼에 들러 장을 보고 숙소로 걸어 왔다.

오늘 배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 겨우 2시간도 안되는데 참 지루하고 가격도 비싸다. 그런데 마닐라에 배로 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지. 저가 항공을 알아보니 제스트 에어가 가격이 싸다. 마닐라에서 자지 않고 마지막날 국제선과 연결되도록 끊으려고 하는데 결제창에서 잘 안된다. 남편이 정보를 열심히 다 입력하고서 카드 결제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길래 설치하겠다 하면 날아가니 열받을 일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가격이 다시 입력할 때마다 오르는 거다. 아마 사겠다는 사람이 일정수 넘으면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시스템인가 보다. 세부퍼시픽보다 400정도가 싸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도 사게 되어 있다. 2번 입력하고 계속 실패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니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 있다. 겨우 공인인증서가 되어 짠 가격에 겨우 표를 샀다! 16시간 걸리는 배보다 1인 600정도가 싸다. 여기는 정말 비행기 아니면 안되는 나라이다. 표 끊다가 지치고 힘도 들어서 그냥 자고 3시에 일어나 일기를 쓴다. 해안이 학교 교장선생님과 경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숙소의 인터넷 환경은 대박이다. 우리집 정도 된다. 어제밤 피곤하지만 이틀 간의 일정을 짜고 바로 잠이 들었다. 내일은 초콜렛 힐과 국립공원, 온천에 갈 예정이다.



■ 2010-1-12(화)



과일과 빵을 먹고 트라이시클로 다오터미널에서 카르멘행 버스를 탔다. 1시간 배차 간격의 버스는 8시 반에 출발하는데 딱 15분 전에 왔다. 시간이 남아 터미널의 의자에 앉아 해안과 엄마는 귀여운 아기 구경을 했다. 정시에 출발한 버스는 터미널 인근에서 정차하여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편지와 장 분 것 들을 챙겨서 간다. 가다가 중간에 기다리는 이웃에게 나눠준다. 이런 심부름도 하나보다. 버스기사 아저씨는 클락션을 심하게 울리는데 "달래?", "버스 오니까 빨리 나와", "버스 지나가니 조심해", "모퉁이를 버스가 들고 있으니 반대편 차는 조심하시오" 등 갖가지 이야기를 오직 빵빵이로만 무지 시끄럽게 놀려댄다. 낯기도 낯아서 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정말 느리게 느리게 로복, 빌라르를 지나 어둡고 시원한 숲과 언덕을 지나간다. 워난 느리니 아스팔트 턱에 머리를 괴고 누워 자는 개도 있다. 이곳은 '로드 킬'이 없다. 칼리보 가는 도로에서는 학교 앞도 양쪽으로 분리대를 교차시켜 놓아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었다. 차에는 창문이 달려있지 않아 시원하다 못해 춥다. 게다가 좌석을 참 많이 많들어 기사 옆의 가운데 까지 딱 차게 앉을 곳이 있다.

이들이 작으니 좌석도 작다. 전대에 넣어 둔 돌아가는 배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걱정이 되었다. 어제 밤에 방에서 남편이 본 것 같다고 걱정말고 가서 찾아보지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다. 없으면 6만원 정도의 표를 다시 사야한다.

초코힐 이라고도 불리는 '초콜렛 힐'에 내려 걸었다. 길을 감돌아 올라가면 그 중 높은 언덕의 정상이다. 마치 왕릉처럼 보이는 1200여개의 봉우리는 산호가 쌓여 솟구친 지형이고 40m에서 100m 정도의 높이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볼 만 했다. 어떻게 갈지 걱정했는데 이토록 간단하게 버스로 올 줄은 몰랐다. 책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어찌고 하는데 좀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덕을 오르는 용도이다. 사람들은 거의 대여차량으로 와서 잠깐 보고 간다. 이진 시원한 바람이나, 조금씩 나타나는 여러 모습의 언덕들을 바라 볼 기회를 놓치는 여행방식이다. 걷는 여행자들은 일본의 젊은 커플 뿐이었다.



내려와서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빌라르의 로가리따 수영장 입구에 내렸다. 2km를 걸어야 하는데 쾌적하면서도 고즈넉한 시골풍경이 좋다. 깔끔한 시골 마을에는 소, 염소, 닭 등 다양한 동물들이 보인다. 날이 선선하고 다행히도 구름이 끼어 모두들 상쾌한 기분으로 걸었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100씩)를 내고 먼저 로가리따에 갔는데 물이 아주 차다. 온천이 아니라 이곳 지형이 구멍많은

석회질이라서 땅으로 스민 지하수, 즉 끌어 올린 샘물이다. 사람도 별로 없고 물도 깨끗해 보이지 않아 그냥 공원에 가기로 한다. 오르는 길이 가파르고 좀 힘들었다. 엄마는 약간의 두드러기도 나고 속이 불편하다시며 아침도 거의 안드셨는데 힘들어 보인다. 해안이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



숲은 습하고 울창하며 땀이 많이 난다. 좁은 벽을 통과하는 지역

을 벗어나자 갑자기 둥글고 넓은 지역이 나타나 신기했다. 직원들이 'long-tail macaque'라는 작은 야생의 원숭이들을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 모아 준다. 바나나와 옥수수를 뿌려 가까이 오도록 하는데 머리 부분의 털이 뽀족 선것이 생김새가 귀엽다. 대장을 둔 이런 집단이 셋이란다. 산책로를 가겠다고 알려 달라니까 자신들이 박쥐가 사는 동굴로 안내하겠다고 한다. 우리끼리 찾아가기는 힘들고 1시간 정도 걸린다.

길은 미끄럽고 좁고 습하다. 산의 언덕을 2번 정도 오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인데 꽤 지치고 땀이 났다. 특히 엄마는 오늘 힘들어 보인다. 가는 길에 커다란 고둥 같은 모양의 달팽이 껍질, 마치 곤충처럼 보이는 엄지손가락 이상의 굵기를 가진 지렁이 종류를 보았다. 이 지렁이가 열대숲을 비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로가리따 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는 넓지 않고 내부의 벽은 석회질이어서 축축하고 미끄럽다. 천장의 작은 구멍 속에 너무나 귀여운 작은 박쥐들이 매달려 잠을 잔다. 랜턴을 비추는 것이 안쓰러울 지경으로 폭 잠든 녀석, 또는 우리의 방문으로 막 날아가는 애들을 보니 이렇게 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꾸 줄어가는 이 아이들은 조용히 잘 쉬어야 하므로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주 작고 귀여운 이 녀석들에게 반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 때문에 서식지를 잃고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박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다.



동굴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냥 맞고 가기로 한다. 좀 더 내려와 로가리따에 도착했다. 땀을 많이 흘려 수영을 하자고 했다. 가이드 해준 오빠들과는 팁을 주고 헤어졌다. 그러나 비도 오고 할 일이 없는지 수영장 직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겨우 5p로 탈의실과 샤워장도 있고 물에 막상 들어가보면 계속 넘쳐 흘러 깨끗하다.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하면 서늘함도 가신다. 산을 헤멘 뒤에 수영을 하니 땀도 식고 상쾌하다. 해안이는 안 들어온다고 밖에서 과자만 먹고 짐을 지켰다. 30분 정도 수영하고 비를 맞으며 다시

걸어서 입구에 왔다. 10분 후에 버스가 와서 겨우 자리 차지하고 추위에 떨며 딱빌라란에 왔다. 아침에 본 아기엄마를 또 만나 해안이는 그 언니와 얘기 나누며 같이 왔다.

비가 오는데 우리를 이상한 장소에 내려줘서 트라이시클로 어제의 코곤시장에 갔다. 부근 밥집에서 오늘 겨우 한끼 식사인 저녁을 먹고 과일가게, 슈퍼 들르고 닭을 사서 숙소로 왔다.

호텔이라 방은 다 치워져 있어 쓰레기도 없고 배표를 찾아도 없다. 프런트의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방의 쓰레기를 뒤지고 싶다고 하니 기다리란다. 잠시 후 없다고 해서 우리도 찾아보고 싶다고 뒤쪽으로 갔다. 직원들 8명 정도가 모여 있고 이들이 모두 쓰레기를 뒤진거다! 우리 방의 쓰레기 봉투를 찾았지만 표는 없었다. 실망하여 돌아서 나오는데 언니가 혹시 이거냐고 달려와 보여 주는데 맞다! 다 쓴 표처럼 보인 것이 플라스틱 컵 사이에 젖어서 붙어 있었던단다. 어찌나 고맙고 기쁘지... 가게에서 찬 음료수를 사다 주었다. 방을 치울 줄은 생각 못했는데 치운 것도 잃어버린 요인이 되었지만 그걸 아슬아슬하게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어제 돈을 셀 때 꺼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청소하면서 쓸어버릴 때 엄마방의 화장실 쓰레기와 섞인 듯하다. 엄마가 화장실에 아이스크림컵을 버렸다고 하시니 그렇게 추측이 된다. 한시름 놓았다. 피곤해서 닭과 과일을 먹고 곧 잘거다.

■ 2010-1-13(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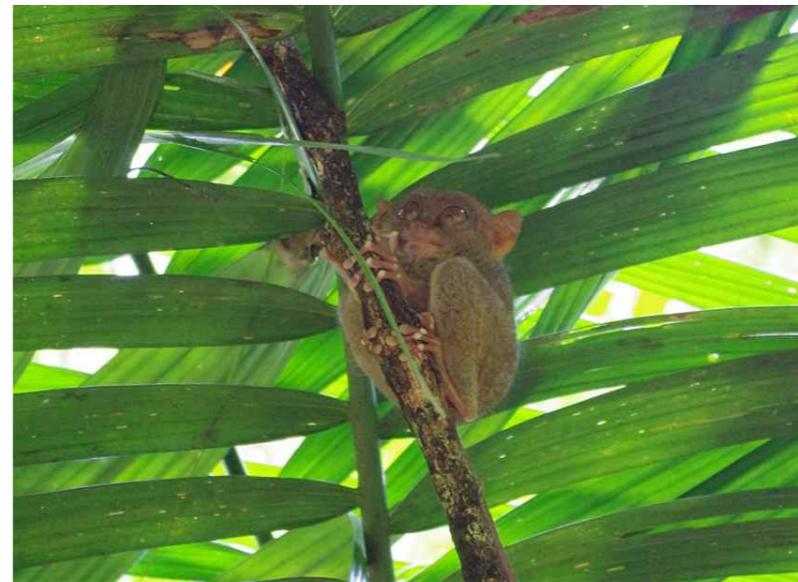


아침 5시에 일어나 일기 점검하고 팡글라오 아일랜드 정보를 보다가 다우이스의 교회를 넣어 오늘 일정을 맞춘다. 6시에 모두 깨워 과일과 빵으로 아침을 먹고 7시 넘어 프론트에 짐을 맡기고 출

발한다. 다우버스터미널에서 코렐라의 타셔연구소 가는 지프니를 탔다. 조용하고 상쾌한 길로 달린다. 어제처럼 길에 차가 많지 않아 더 쾌적하고 좋다.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의 여학생들이 속속 차에 탄다. 그들 구경 만으로도 즐거운데 바깥의 경치가 또한 비온 후라 참 좋다.

8시에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는데 책과는 달리 9시에 연다. 먼저 도착한 싸이클 탄 외국인이 1km 뒤에 마을이 있단다. 날도 좋으니 한번 걸어보기로 한다. 햇볕과 바람, 푸른 하늘, 야자수, 고즈넉함 등 모든 것이 참 아름답다. 가기 싫다고 투덜대던 해안을 빼고는 대만족이다. 따가운 햇살 아래와 그들은 천양지차다. 걷다가 다시 아까 그 외국인이 와서 자기가 가보니 마을이 더 멀다고 알려준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적한 길로 접어들어 길가에 앉아 과자와 바나나를 먹었다. 바람이 시원하다.

쉬다가 다시 걸어 타셔연구소로 갔다. 우리가 첫 손님이란다. 타셔에 대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비디오를 먼저 본다. 원숭이가 나오기 이전의 생명체인 이 녀석은 곤충, 나비 등을 먹고 사는 야행성 동물로 박쥐와 가까운 생김새이고 얼핏 보면 귀여운 쥐 같기도 하고 원숭이 비슷하기도 하다.



크기가 손 안에 들어 오니 귀여워서 포획되어 사라지고 있어 보호종이 되었다. 눈알 하나가 자신의 뇌보다 큰 단순 구조이다. 낮에는 잘 쉬어야 밤에 활동한다. 외계인의 형상과 가장 닮았고 머리가 180도 이상 돌아가고 큰 귀도 움직인다. 건물 뒤의 보호 서식지 숲에 가서 직접 살펴 본다. 아저씨가 타셔의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는 조용히 구경하는 거다. 실제로 보니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지 단박에 왕팬이 되어 버린다. 무리짓지 않고 한 마리씩 지내며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곤충을 먹는다. 엄마와 함께 있는 7개월 짜리가 거의 엄마 크기이다. 손으로 가는 나무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엄청 예쁘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일부 섬과 보르네오, 필리핀 남부의 몇 개 섬에만 있다. 쉬는데 방해가 될까하여 오래 보고 싶지만 얼른 나왔다. 마치 코알라, 팬더류와 같이 특이한 생명체다. 이 애들이 천적을 피해 동굴로 간 모습이 박쥐일까. 세계 각지에서 기금을 모아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리핀이 좀 더 타셔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를 바란다.

길에서 차를 기다려 다시 타니 신기하게도 아침에 타고 온 바로 그 차다. 사람이 딱찬 틈에 비집고 앉아 오느라 힘들었다. 20분 뿐이길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사람 많은 차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아일랜드 몰의 '쵸우킹'이란 중국음식 체인점에 가서 국수를 먹고 모두 크게 실망했다. 국수 그릇 크기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된다. 크게 한번 후루룩 거리면 사라질 분량. 소고기면은 너무 짜다. 비싸게 주고 돈만 버렸다. 슈퍼 앞에서 애저구이를 발견하여 엄마가 사줬다. 겉은 아주 딱딱하고 속은 풍미가 있다. 질 좋은 구운 돼지이다. 400g을 냇이 겨우 먹었다.



재래시장 구경을 간단히 하고 다우이스 가는 차를 탔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다. 남편과 시장에 가서 말린 한치를 샀다(무척 맛있다! 200g에 130). 자투리 바나나를 1kg에 10p(최저가) 받는 집에서 사려는데 아저씨가 없다. 바로 앞 가게에서 플라스틱 병뚜껑 흰색, 파란색으로 장기인지 체스인지를 두는 거다. 여기에 속 빠지셔서 5분을 기다려도 팔 생각을 안한다. 우리가 대충 1kg 분량을 집어 달아서 돈을 아저씨 손에 쥐어 줬다. 너무 재밌는 체험이다.



차에 올라 바나나와 한치를 맛있게 먹고 출발. 엄마는 한치가 맛있다고 사카자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다. 냄새가 대박이다.

역시 봄비는 차에서 몸이 꼭 끼인 채로 바다를 건너 팡글라오의 다우이스 성당 앞에 내렸다. 꽤 낡고도 오래된 큰 성당이다. 좋게 표현하자면 고풍스러움이 넘친다! 마당을 지나 바닷가로 가면 바닷물 위에 지어진 건물인 실 곳이 나타난다. 나무 바닥 아래로 물이 보이는데 석회수가 많은 이 섬의 물은 뿌연게 흐려서 맑게 보이지는 않는다. 멀리서 보면 멋진 옥색이다.

좁은 의자에 모두 누워 한숨 자려는데 바람이 세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벗어 놓은 신발이 날아가려고 한다. 어제 해안이가 만난 그 언니가 다우이스에 사는데 전화번호를 놓고 왔단다. 작은 박물관을 구경하고 기념품점에서 엄마가 못난이 진주 팔찌를 사주셨다. 승은이 것도 샀다(예쁜데도 5,000원 정도). 더 사고 싶어 하셨으나 사이

즈가 모두 작다. 해안은 목주반지를 사주셨다. 이곳은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다.



길에서 차를 잡아 타고 중심부에 들어와 제스트에어에 표를 인쇄하러 갔으나 인증번호를 몰라 포기했다. 50이나 수수료를 받는단

다.

시간이 2시가 되었다. 남편이 2시 30분 배가 있다고 해서 빨리 서둘러 타 보기로 한다. 트라이시클 두대로 재빨리 숙소로 들어 짐을 찾은 뒤 짐해둔 목걸이(친절한 이 숙소를 꼭 기억하고 싶었다!)를 사고 항구로 갔다. 안타깝게도 잘 못 알아서 11시 반, 4시 반 배뿐이다. 2시간 이상 남아서 걸어 보홀대학교 앞의 밥집에 갔다.



역시 배부르게 먹고 푸딩, 아이스 캔디라는 하드도 사 먹었다. 언니들과 사진도 찍고 반찬도 찍다가 대학 앞 인터넷 카페에서 겨우 12페소에 비행기표를 인쇄했다. 아까 안하기를 얼마나 잘 했는지! 항구로 오다가 기념품점에서 보홀의 전통 땅콩과자를 사고 해안이는 타셔 티를 샀다.

세부 오는 배는 지나치게 춥다. 남편은 글을 쓰고 나는 책에서 팔라완에 대한 감을 잡았다. 세부항에서 택시로 올드타운에 와서 센츄리 호텔에 들었다. 해안이가 냉방병인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는 남고 남편과 아기에수가 모셔진 성당에 갔다. 미사의 규모가 무척 커서 길을 차단하고 길에서도 미사를 드린다. 가톨릭 국가답다.

카본 시장은 규모가 엄청 크다. 마닐라의 후줄근한 재래시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채소며 과일이 넘쳐나고 밤 8시가 넘었는데도 북적댄다. 우리는 꼬치와 반찬, 밥을 길거리에서 시켜 먹었다. 맛이 좋고 싸다. 해안이용 닭다리 구이와 밥을 사왔더니 너무나 좋아하며 먹는다. 망고와 수박을 사고 돌아와 같이 먹고 우리 방에 왔다. 내일 아침 다시 엄마와 산책을 나갈 거다.

4. Cebu에서의 3일

■ 2010-1-14(목)

아침 6시에 엄마와 남편과 함께 아기예수 성당에 갔다. 미사는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침인데도 사람이 무척 많다. 어제밤에는 더웠는데 오늘은 가는 비가 오고 시원하다.



성당 안에는 마젤란이 도착하여 십자가를 세우고 지역 족장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성스럽게 그려져 있다. 부족에게 화살을 맞아 죽는 신부의 모습과 이렇게 아침부터 미사에 많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식민지배를 도운 종교와 몇 백년 후 국교가 된 종교는 별개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미사 후 사람들은 간단한 빵을 사먹고 일터를 향해 흩어진다. 시청 앞에서 마젤란이 세웠다는 십자가의 조각으로 만든 거대한 십자가도 보았다. 빵은 단순하게만 들어졌고 맛있다. 숙소가는 길에 매운탕 같은 것을 끓이는 곳에서 옥수수로 만든 우갈리 비슷한 것과 함께 먹었다. 슈퍼에서는 브랜디가 아주 싼다(36).



방에 와서 사 온 것을 간단히 먹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9시에 나와 택시로 공항에 갔다. 젊은 기사는 세부 특유의 명랑한 사람이다. 내일부터 9일간 아기예수를 기리는 축제(씨눌룩 피에스타 - 아기예수 산토 니뇨를 기리는 축제)가 열려 광대한 길을 차단한다고 한다. 춤과 노래와 퍼레이드로 시끄럽단다. 책에 보면 이 기간에는 방도 없을 정도란다. 잘 피해서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드라마 얘기며 이곳 사람들이 늘 말하는 노래 'nobody'나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얘기로 재밌게 공항에 왔다. 그런데 공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9시 40분 좀 넘어 도착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11시 반이 아니라 10시 였던 거다. 벌써 보딩 불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짐을 붙이려면 45분 전에는 공항에 와야 한다고 안 된단다. 그냥 짐 가지고 탄다고 우겨도 15분 전에는 문을 닫으니 안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물론 완전히 시간을 잘못 알고 확인을 안한 우리의 실수가 맞지만 보통의 항공사에서는 서로 연락을 취해 급히 태우고 떠나는데 끝까지 안된단다. 5분 정도 하소연을 하다 10분 전에 포기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다시 표를 사면 자기네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니 규정을 내세우면 끝이다. 그저 시간 확인을 안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우리가 뒤에 흘렸던 것 같은 느낌이다.

목도 아프고 맥이 빠져 좀 앓아 있었다. 아침에 산책에서 7시에 돌아와 노닥 거렸는데 표 한번 확인하지 못한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아쉽다. 그리고 남편에게만 맡기고 그냥 있었던 나 자신이 용납이 안된다. 결국 표를 다시 사러 갔다. 마닐라를 경유해서 푸에르토 가는 표를 사면 46만원 정도가 추가되고 3일 후 출발하는 직항 비행기는 20만원 이상이 든다. 다른 항공사에는 표가 없어 이 시간 것을 다시 샀다. 정말 속이 쓰리다.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했다. 남편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비행기 표를 일일이 사고 용지를 보관하며 잘 관리해 왔는데 비행기를 여러 번 타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 나처럼 대 놓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더 황망할까. 엄마가 괜찮다고 달래시지만 우리는 제 정신이 아니다. 아예 비행기가 떠났어도 포기가 잘 안될텐데 비행기가 뻘히 안 떠나고 있는데 못 타니 더 괴로웠다.

정신이 멍한 채로 택시를 타고 남부터미널에 갔다. 도로가 몹시도 막힌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라도 그냥 즐겼다. 도대체 이 여행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운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터미널에서 결국 우리가 가지 않은 곳, 모알보알 가는 버스를 탔다. 도시를 빠져 나가 바닷가를 달리다가 산지를 넘어 간다.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해안이는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하고 남편과 나는 좀 즐겼다.



2시간 반 만에 타운에 도착한다. 가늘던 빗발이 타운에 내리니 거세어져 있다. 트라이시클이 화이트 비치에 가라고 달라붙는다. 100이나 부르는데 어찌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며 아주머니에게 타운에서 잘 곳이 없는가 물었다. 식사 후 이 분이 소개해 준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의 숙소로 같이 갔다. 방에 침대만 있고 공동욕실을 써야 하는 곳이다. 침구나 시설이 많이 허름해서 탄자니아 음베야의 최저가 숙소가 떠오른다. 1인당 100 이다. 물론 타운에 남아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한번 자 볼까 했다. 그러나 오늘은 비도 퍼붓고 엄마도 계신데 비행기를 놓친 후 이런 숙소에 별 할일 없이 있는게 참 처량할 것 같다. 그냥 해변으로 가기로 한다.

화이트 비치의 숙소는 가격이 몇천 대로 무척 비싸다고 가지 말라는 기사들이 많다. 과일을 사고 결국 원하지 않았던, 책에 잘못된 개발의 전형이라는 파낙싸마 비치로 간다. 'sunshine pension

house'에 들었다. 수영장이 있어 그나마 바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엄마가 여기서 수영하시면 될 것 같았다. 비는 계속 퍼붓고 우산을 빌려 바닷가로 가보니 정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모든 건물들은 바위 위에 친 웅벽 위에 올라 앉아 있고 모래는 3m 정도가 남은 해변. 바닷물이 밀려오는 곳은 암석이 드러난다. 게다가 부유물들과 개들 뿐. 겨우 몇십 미터 멀리 떨어진 바다 위로 심해가 느껴진다. 색깔이 무섭게 짙게 보인다. 분명 예전에는 고운 산호 해변의 모래가 있었을 곳에 바짝 바다 앞으로 건물이 난립하는 바람에 삼시간에 해변이 망가진 사례이다. 가까운 곳에 심해가 있어 모래의 유실은 매우 빨랐을 거고 대책없이 변했다. 다른 쪽도 걸어가 봤지만 별 볼 것이 없다. 도저히 이곳에는 더 볼 것도 없고 수영도 불가능한 바다라서 남편과 의논하여 내일 다시 세부시로 들어가기로 한다. 시늉을 보라는 운명인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빵 파는 아저씨에게 저렴한 빵을 사서 돌아왔다. 엄마는 추운데도 수영을 할까 고민 중이시고 나는 다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냥 잔다. 일어나 일기를 쓰는데 해안이가 왔다. 마음이 항상 소녀인 엄마가 해변에서 고동을 주워왔단다. 주인에게 살아달라고 하신다니 참 황당하다. 해안이가 안된다고 하나까 나를 보여 주기 위해 가져오셨단다. 참 천진난만한 엄마다. 일찍 잔다.



■ 2010-1-15(금)

비는 쉬지 않고 밤새 내렸다. 새벽에 닭들이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여전히 비는 퍼붓는데 6시에 엄마와 바다에 갔다. 어제 보다 물이 많이 빠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입구에는 부서진 산호들이 많다. 조금 들어가니 스노클링 할 때 보았던 동그랗고 색깔 있는 산호들이 약간의 색을 띤 채 많다. 또한 거대한 말미잘 종류 같은 것이 만지면 약간 끈끈하고 물렁한 채로 사방에 널려져 있다.



생각해보니 바로 요놈들이 살아있는 산호같다. 산호는 물 속에서서는 흐느적 거리지만 물이 빠지면 요런 형태로 살짝 처져서 누워 있을 것이다. 제주도 바다에서 봤던 붉은 빛의 무척 아름다운 녀석들도 있다. 엄마와 나는 스노클링도 안하고 이렇게 많은 산 산호는 보는 것이 처음이라 대박이라며 좋아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밟기 때문에 무척 조심하여 얼른 나갔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다.

남편을 깨워 우산을 빌려 쓰고 사진 찍으러 다시 갔다. 그새 물이 더 빠져 그 너머가 바로 심해(사실 40여 미터 정도)다. 안 쪽으로 더 많은 산호가 널려 있다. 발에 쉽게 밟힐 수도 있게 많아 사진만 찍고 나왔다. 숙소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맑은 날 본다면 멋진 것이다. 남편은 너무 많은 것이 산호가 아니라 해면일지도 모른다. 집에 가서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수영장에 엄마와 남편과 함께 수영을 했다. 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입구 가까이에서 만 놀았다. 풍장도 멋지고 잠도 아주 잘 오는 좋은 곳이다. 어제는 빗소리 아자나무잎 스치는 소리에 더 폭 잠을 잤다.



조각창의 유리를 열어 밖을 보며 이를 닦다가 빵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칫솔만 빼고 마구 달려나갔다. 벌써 한참을 가셨지만 쫓아가서 빵을 샀다. 어제 그 분은 아니었지만 화덕에 구운 빵의 향과 맛 그리고 가격에 모두 감탄했다(46P).

오죽하면 엄마가 아저씨도 찾고 고등도 놓아준다며 또 나갔겠는가. 한참 만에 아저씨는 이미 아침에 마을을 다 돌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하시며 오셨다. 내가 마을을 떠날 때 만났던가 보다.

트라이시클로 타운에 와서 노란 세레스 버스를 기다린다. 빵집엔 우리가 목메던 빵들이 더 큰 모양으로 그득하고 가격도 1씩 더 싸다! 이것 저것 사 모았는데 아뿔싸! 완전 공장빵 맛 같이 푸석한 것이 먹기 싫을 정도... 우리의 실망이 너무도 컸다.

버스에는 사람이 참 많았다. 올 때 보다 사람들이 많다. 역시 버스를 타야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옆자리의 할머니 두분은 물건을 바리바리 신고 타셨는데 살아있는 닭도 비닐에 싸서 발치에 두어 꼬리 깃털이 움직인다. 내릴 때도 나중에 물건을 두고 내리려 하셔서 한 멍치를 챙겨드렸다. 중간에 잠시 쉬 때 할머니들은 밖에 나가셔서 우리가 산 맛있는 빵과 탄산음료를 사 오셔서 맛나게 드신다. 나도 같이 부스럭 대며 꺼내 먹으니 필리피노가 된 느낌. 점심시간이 되어 모다 그렇게들 하고 있다.

퍼붓는 비 속에 터미널에 내려 택시로 자스민거리에서 숙소를 찾았으나 모두 없다. 정말 아무데도 방이 없으니 씨늘룩 축제가 우리는 무섭다. 남편이 오스메니아 씨커스의 투어 사무실에 들어가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나이 드신 아주머니는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여러 곳에 전화를 해주셨다. 결국 한 군대를 찾아주셨는데 사례비도 거절하시는 거다. 이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의 귀인인가.

택시로 그 숙소를 겨우 찾았는데 좀 초라한 편이나 우리 처지에 가릴 것이 없다. 나와서 내일 예약할 숙소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중전화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숙소에 가서 전화를 좀 쓰자고 부탁하니 방의 전화가 공짜란다! 방에서 막탄 아일랜드의 리조트 부터 여러 곳에 전화했으나 다 찾는다. 결국 남편이 지도를 보고 도시 외곽의 'Prince's Court drive in' 이라는 숙소에 전화하니 방이 있는데 직접 오라고 한다. 택시로 가서 방을 예약했다. 방이 굉장처럼 넓고 멋지다. 아예 돈을 다 지불하고 왔다(2인실 2,000p). 잘 곳을 구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날이다. '고로르도 고택 겸 박물관'에

갔다.



길가에서 밥집을 발견하여 국수 네 개와 각종 반찬, 밥을 많이 먹고도 114p 가 나왔다. 오늘 처음 먹은 맛있는 밥이다. 엄마가 구운 아지 두 마리를 모알보알 타운에서 사셨는데 역시 반찬이 되었다. 고로르도 고택은 외관은 별로였으나 참 멋졌다. 고가구와 바닥, 기둥의 고풍스러움과 남향으로 일자집 형태로 150년전 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품위가 있었다. 사실 박물관으로 후손들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택시로 망고플라자에 갔으나 볼 것이 없다. 플라자 옆 슈퍼에서는 작은 스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스페인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36년간 가수로 떠돌다가 지쳐 필리핀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았단다. 밤에는 호텔에서 가수로 노래한다고 오라고 한다. 마드리드의 삶이 너무 힘들어 떠났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다고 한다. 씨늘룩 처럼 멋진 축제를 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

인사를 나누고 빗속을 걷다가 비를 피해 앉았다 가려고 '졸리비'에 갔다. 한번쯤은 어떤 곳인지 가보려고 했었다. 햄버거, 스파게티, 음료와 썬데. 우리나라의 롯데리아 같은 곳이다. 맛은 그렇다.(하지만 초우킹처럼 으악스러운 건 아니다)

다시 걸어 나와 지프니를 타고 대형 슈퍼에 갔다. 한치, 말린 망고, 생우유 등을 좀 푸짐하게 샀다. 엄마는 거대한 생새우나 싱싱한 물고기를 보고 못사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예쁜 나비고기나 파란 지느러미의 고기들이 누워 있는 모습은 생경하다. 길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물을 가르고 달린다. 다시 비를 맞으며 숙소에 왔다. 무사히 돌아 온 것이 신기할 정도인 날이다. 우리 방은 밀폐된 공간이라 좀 답답하고 엄마방은 넓지만 길 거의 소음과 노래소리가 엄

청나다. 슈퍼에서 산 생우유는 파스퇴르 우유랑 비슷하다. 생우유를 처음 봐서 신기하다. 한치는 정말 맛있다. 주전부리 거리를 먹고 일찍 자야겠다.



■ 2010-1-16(토)

간밤의 숙소는 정말 불편했다. 냉방을 끄면 밀폐된 공간이라 답답해서 계속 켜두어야 하는데 냄새도 좀 퀴퀴하다.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갈까 했는데 아직도 비가 온다. 복도에는 사람이 꽂았다. 일단 해안이까지 깨워 망고를 먹고 산토니노 성당에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려고 나간다. 프론트에 열쇠를 맡기려고 하는데 체크 아웃을 7시에 하란다. 지금이 7시 인데 무슨 소리? 왜 그러냐고 물으니 어제 우리에게 7시에서 7시 반에는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었던단다. 남편과 나는 금시초문이어서 황당하기만 하다. 언니는 계속 얘기했다고 하고 우린 모른다고 하고 말이 반복되자 내가 썩기를 박아 버렸다. 법적으로 우리는 12시에 나갈 수 있으니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못 나간다고 했다. 그렇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illegal' 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언니가 옆 사람과 의논하더니 정 그렇다면 12시에 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뒤에서 해안이가 어제 7시, 7시 반 어쩌구 하는 얘기를 들었던단다. 남편이 그제야 어제 하루 더 방을 얻을 수 있냐고 말했을 때 7시나 7시 반에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듯 한데 그게 그런 의미인 줄은 몰랐단다.

짐을 챙겨 나가기로 한다. 대신 짐을 맡기고 돌아다니기로 했다. 언니는 사람들이 5시 부터 와서 기다렸고 그 층 전체를 예약했단다. '우리가 법적으로 12 시까지 있을 수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말한 것은 너무 과했다고 남편이 말해서 언니에게 그 부분은 사과했다. 물론 손님을 일찍 나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거듭 확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은 이 사람들에게 있다. 나가란 느낌의 표현을 남편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해안이가 비슷하게 들은 것이 있어서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이다.

비 오는 질퍽한 길을 걸어 시장통을 지나 성당에 갔으나 미사를 기다리는 행렬이 길다. 포기하고 문어집으로 간다. 어제와 오늘, 엄마는 우산을 내게 주시고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걷는다. 해안과 남

편도 대충 비를 맞으며 다닌다. 이 곳 사람들도 그냥 비 맞고 느긋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풍경이다. 문어집에서 소고기 국밥 종류와 오징어, 대형 오징어발 튀김 등을 시켜 밥을 먹었다. 맛이 좋았다. 슈퍼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샀다. 오직 이 곳에만 있으니 앞으로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곳 만의 야채 씨앗들을 샀다.

숙소에서 전화를 빌려 주말론 나비연구소에 예약을 하려고 하니 그냥 와도 된단다.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지프니로 바삭초등학교 앞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다. 주말론은 화가이자 교수로 나비 채집과 연구, 죽은 나비의 날개를 이용한 그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다. 언니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첫번째 전시실에는 여러 나라의 나비, 나방, 곤충 등이 있다. 나비의 색이 너무나 곱고 특히 무늬에서 발견한 알파벳과 숫자들이 무척 신기하다. 두번째 전시실은 주말론의 그림과 나비그림을 모은 곳. 이 사람의 그림은 참 아름답다. 나비의 날개를 이용하여 모자이크한 그림은 그저 감탄만 나온다. 푸르게 빛나는 나비 날개의 색깔, 노란 바탕, 긴 수염의 묘사 모두 놀랍다. 고희의 그림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물감과 나비 두가지로 똑 같이 그렸다. 사진은 찍을 수 없다. 염서가 있기는 하지만 색깔이 좋지 않아 사지 않았다.



정원에서는 키우는 나비들을 관찰할 수 있다. 큰 나비장 안에 나비들이 꽃이나 스펀지에 적셔 놓은 꿀을 빨다. 한 쪽에는 애벌레와 고치를 볼 수 있는데 황금빛과 똑 같은 고치도 있다. 직접 애벌레를 꺼내 만져 보게도 한다. 전에도 누에를 키워본 적이 있지만 애벌레의 감촉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말랑하고 따듯하다. 이 높은 몸에 뽕 형태가 많은데 뽕 모양도 보들보들 해서 자꾸 만지고 싶어진다. 애가 괴로울까봐 오래 만질 수는 없다. 오렌지색의 작은 두 개가 모여져 올라와서 엄청 귀엽다.



타서 연구소에서 타셔의 팬이 되었듯이 모두 나비 애벌레의 팬이 된다. 나비연구소가 이 정도로 멋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기 전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온 것이어서 나비가 그렇지 뭐 별거냐 했었는데 생각이 짝 바뀌었다. 책에서 표현했 듯 세부의 보석이 맞다. 알고 보면 자연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나비도 놀라울 뿐이다. 주말론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으니 사실 정원의 나비들을 보는 거다. 무엇인가에 빠진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짐을 찾아 택시로 'Prince court drive in' 호텔에 왔다. 떨어져 있던 방을 나란한 방으로 바꾸어 주었다. 엄마방은 크기가 광장이다. 짐을 놓고 쉬다가 12시 반에 'SM city'라는 대형 몰에 갔다. 계속 비가 내려서 전망대에도 갈 수 없고 이곳이 사실

상 마지막 도시여서 기념품류의 가져갈 것을 사야한다. 해안은 몹시 기뻐했다. 씨놀룩 축제 기간이라 주변 지역의 특산물점이 만들어졌다. 예쁜 악세서리와 기념품, 전통과자 등을 산다. 남편은 여러 시간을 우리를 위해 같이 구경해 주었는데 꽤 힘들었을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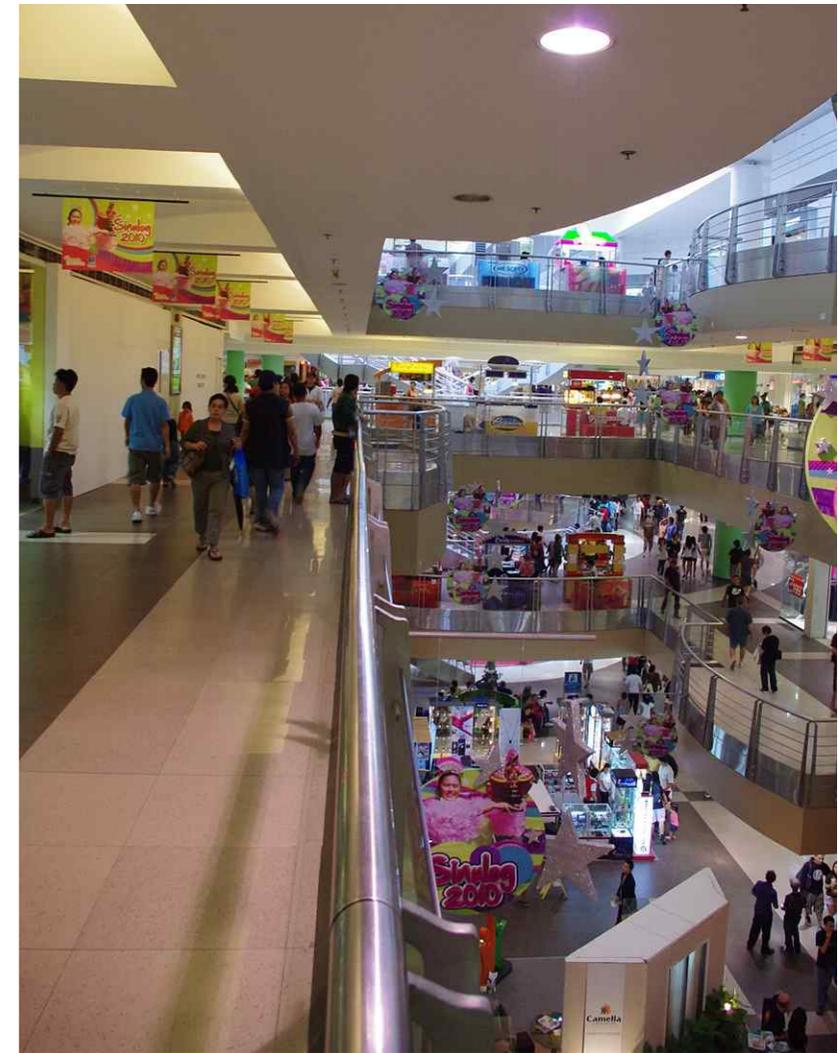
여행 내내 신발이 불편해서 새 것을 사고 싶어 한다. 다행히 편한 샌들을 파는 곳을 찾아서 해안이는 슬리퍼, 나머지 모두는 샌들을 사서 신었다. 비용은 엄마가 생일 선물이라고 내셨다. 약간의 세일이 되어 6만원이 약간 안된다. 씨놀룩 기간에는 세일하는 곳이 많다. 다음에 오라고 할인 쿠폰도 받았다.

음식점들은 비싸고 마음에 안들었으나 나가서 먹을 곳도 없고 그냥 일식집에서 라면과 볶음면, 볶음밥을 시켰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양은 적으면서 짜고 별로이다. 싸고도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마구 떠올랐다. 엄마는 한식집에서 먹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에서는 한식을 안 먹는다고 했다. 엄마는 이왕 현지식을 안 먹을거면 한국음식점 것을 팔아 주어야 한단다. 배만 부른 밥을 먹었다. 엄마가 커피와 비빙카 풀빵을 사주셨다. 커피숍에 앉아 쉬며 이야기도 나눈다. 슈퍼에서는 망고, 노란 수박, 애플 망고와 오징어, 전통빵을 샀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거대한 듯대기 시장 분위기다. 비가 오고 주말이라 이곳으로 몰린다. 남편은 이곳에 출입하는 현지인들은

좀 더 하얗고 때깔부터 다르단다. 역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숙소에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아 한참을 줄서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잡아 돌아왔다. 샤워하고 쉬려는데 왼쪽 신이 한 사이즈 더 큰 걸 발견하여 다시 돌아 택시타고 갔다. 언니는 미안해 하며 새 신으로 교환해 주었고 남편의 신을 할인쿠폰으로 10% 할인받아 하나 더 샀다. 뒷쪽에서 쉽게 택시를 잡아 30여분 만에 돌아왔다. 물이 가까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같이 먹은 애플망고는 섬유질이 더 많고 향기가 짙다.

방에서 쉬는 동안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씨놀룩 전야의 불꽃놀이이다. 굉장한 소음이 계속된다. 나중에 들으니 엄마방 창에서 아주 잘 보여 좋은 구경을 했단다. 남편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던 상황과 숙소를 일찍 비워달라고 했던 상황에서의 나의 반응 중 좀 적절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말을 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 대응방식도 정 반대이다. 과한 표현에 대한 충고를 나는 지적으로 받아들였고 말을 하는 도중에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결국 일기를 쓰지 못하고 자서 새벽에 일어나 쓴다. 어제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미안하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맞추려 노력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인정한다.



5. 푸에르토프린세사

■ 2010-1-17(일)

새벽에 일기를 쓰고 남편을 깨웠다. 어제 남편의 충고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사과했다. 짐을 싸고 전통 빵과 과일을 먹고 출발한다. 숙소 바깥 길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걷는다.

숙소 앞에 택시 회사가 있다. 이곳 기사들은 비싸게 받으려 하므로 지나치려는데 한 기사가 달려와 미터로 가겠다고. 짐을 가지고 안에 탔다. 미터가 30 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고 편히 앉아 있었다. 남편에게 몇 시에 출발이나, 이곳이 처음이나, 시간이 남는데 막탄 섬을 둘러보겠느냐 등을 묻다가 반응이 썰렁하니 조용해졌다. 가운데 앉은 해안에게 미터로 나오는 가격을 체크해서 우리말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많이 안 왔는데 벌써 이상하게도 145란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우리가 미터기가 이상하다며 고장 났냐고 물으니 아니란다. 남편이 조곤조곤 미터기의 요금을 옳지 않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를 추정하여 공항까지 100이나 110을 주겠다고 했더니 'No!'를 반복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공항에 가서 그냥 그 돈만 주고 내리기로 했다. 그랬더니 막탄섬 들어가는 다리 건너 황당하고 넓은 길에서 내리라고 한다. 80 을 받으라고 남편이 주어도 받지 않는다. 기사 옆자리에 두고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몽둥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문을 열고 쳐다보는 거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걸어서 앞으로 가도 택시가 안 온다. 그놈이 다시 올까 걱정도 된다. 완전 포라이, 찌질이 같은 놈이다. 그래도 얼마 안지나 건너편의 택시 하나가 돌려서 왔다. 남편이 기사에게 프린스 코트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나오나 물었다. 100에서 110 정도란다. 이 아저씨가 얼마나 착하게 느껴지던지... 50 주고 내려 공항에 들어왔다. 황당사건에 어이가 없다. 몽둥이를 꺼내서 어찌자는 건가. 그리고 그깟 몇 십을 더 챙겨 뭐하겠고 그렇게 까지 하는지.. 해안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무섭단다. 공항에

는 보안요원들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기다려서 무사히 비행기 안에 들어오고 나서 몇 시까지 사람을 태우나 유심히 보았다. 10시 10분 전이야 비행기의 문을 닫는다. 더 이상 그날 일은 생각을 말자! 겨우 1시간 약간 지나 푸에르토에 도착하여 짹짹 움직여서 무사히 바라던 까사 린다에 들어오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발빠름과 눈치는 대단하다. 남편의 활약이 컸다. 정원의 중간에 놓인 편안한 장소에 앉아서 보고 해안이와 엄마는 해먹에 누워도 본다. 고풍스러운 앤틱형 집이다. 이런 곳에서 푹 쉴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거다. 우리 방도 침대 네 개가 놓이고도 공간이 넉넉하다. 수시로 사두었던 한치를 씹으며 돌아 다닌다.



내일 투어를 예약하고 시내구경을 간다. 쫄깃한 면발의 떡국 같은 베트남 국수도 모두 좋아라 하고 대형 슈퍼도 있어서 없는 것이 없다. 사람들도 무척 많아 상상했던 작은 도시가 아니다. 전통 시장은 통로가 좁고 냄새가 퀴퀴하기는 한데 이곳 시장의 수박이 제일 싸다. 파파야도 사고 숙소로 왔다. 모두 샤워한 후 수박 한 통을 단숨에 다 먹었다. 엄마와 나는 한숨 자고 남편은 일기, 해안은 해먹을 차지하고 강의를 듣는다. 해안은 숙소에 있겠다 해서 다시 셋이 슈퍼 NCCC에 갔다. 물건들이 다양하고 싸서 주섬주섬 과자며 여러가지 특이한 것들을 샀다. 술도 다양하고 싸다며 남편이 좋아한다.

시장 앞의 신기료 아저씨에게 엄마의 신을 맡기고 시장에 갔다.

먼저 수박을 사서 가게에 맡기고 한치를 보여주며 어디서 파나 물어서 찾아갔다. 슈퍼의 경우, 건어물 생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포장되어 1kg에 650 이나 하는데 시장은 450 밖에 안하고 파는 곳도 많다! 캐슈넛은 1kg에 340. 오랜만에 대박 손님을 만난 아이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밝다. 엄마가 두 가지를 다 샀다. 한치가 한 보따리가 된다 (같은 가격이니 작은 것을 사는 게 더 보드랍고 맛있다).

아까 산 파파야가 별로 맛이 없어서 이번에는 노란 파파야를 사고 맡긴 수박을 찾은 후 튀김 꼬치 하나씩 물고 신기료 아저씨에게 간다. 30분 후에 오라고 해서 시장 구경을 오래 한건데 이 아저씨의 신발 꼬매는 솜씨가 예술이다. 70p를 기쁘게 주고 새 신의 부활을 축하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술자가 이제는 없다고 봐야겠지. 엄마가 아주 기뻐하신다. 경나가 오래 신던 신이 이렇게 멀쩡해져서 신기하다. 트라이시클 한대에 셋이 타고 숙소로 온다. 이 곳은 더워서 살살 움직이며 걸어야 한다.



열심히 강의를 들은 해안을 데리고 책에 나온 숙소 뒤의 베트남 쌀국수 집을 찾았으나 없다! 점심에 먹던 국수집을 향해 걷다가 'Caldo'라는 죽을 파는 가판대를 발견했다. 15 밖에 안하는 요놈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두 감탄을 하며 먹었다(닭죽에 가까우나 더 묽은 스프 느낌의 죽). 남편은 단숨에 두 그릇을 먹는다. 살살 씹히는 생강이 입안에 향을 주며 호로록 넘어가는 것이 참 별미이다. 눈여

겨 보았던 닭집이 다 팔고 문을 닫아 건너편 집에서 줄서서 20분 정도 기다려 슈퍼사이즈 바베큐 닭을 180 에 샀다. 기다리는 수십 명 필리핀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이 재밌다. 그렇게도 닭이 좋다. 이 집이 이번 휴가 기간에 전 필리핀 체인점 중 1등 판매점이란다.

사서 오는 길에 콜라와 물을 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멋진 숙소로 돌아왔다.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조차도 얼마나 맛있던지... 엄마는 잘 안 먹던 콜라까지도 맛있다고 하신다. 모두 날마다 사 먹잔다. 게다가 후식으로 파파야 두 통을 즉석에서 다 해치우고 개구리 배들이 되었다. 이 곳에 오래 있으면 돼지가 되겠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 퍼붓는 비 속에서 걷고 갈 곳 없어 막막하던 세부에서의 고생을 생각하면 여기는 천국 이랄까. 이제 자야 한다. 내일 사방 지하강 투어는 1인 1,500 이나 한다. 수영할 시간을 준다 하니 수영복을 속에 입고 갈 것이다. 이 곳에 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도착한 것인지...

아나키 : 사실 그 택시기사 녀석이 몽둥이를 꺼내 보일 때 잠시 헛웃음이 나왔다. 길지도 않은 몽둥이로 우리를 때려고? 충분히 피할 만하겠더구만. 아니, 좀 맞아 두는 게 더 좋을라나? 후후.. 일단 나로서는 화를 내지 않고 되도록 담담하게 내 입장을 밝혔으므로 제놈이 나를 팬다면 단지 사기 치려다 들통난 게 아까워서 남을 때 는 게 될 테니 양심에 꽤나 부담이 있었을 테지.

우리가 놓쳤던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가는 비행기. 오늘은 흑시 나... 하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예정 시간 보다 15분이나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략 150명 정도가 꽉 차서 가는 걸로 봐서 꽤나 인기 있는 관광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릴 때 쓰음 든 생각.

'이 많은 인원중 유럽인들은 모두 론리플래닛을 들고 다닐 것인데 그곳에서 추천해 준 까사린다 호텔을 다 노리고 있겠구나. ㅎㅎㅎ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숙소 잡기 곤란하겠는걸!'

공항 입국장 안에 있는 시티 인포메이션에서 지도를 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 봤다.

"혹시 엘니도에서 부수앙가 섬으로 가는 페리 시간을 알 수 있

나요?"

"페리는 두 달 전부터 끊겼고 운항 일정을 알 수 없어요"

"(헉!) 그러면 이곳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부수앙가 섬 가는 페리는요?"

"그것도 두 달 전부터 끊겼답니다"

이게 뭐가. 우린 부수앙가 공항에서 마닐라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 놨는데 어찌라고!

그런데 옆에 있던 금발의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서는 방카(가로 지지대가 달린 소형 선박)는 있지 않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없다고 했다. 아저씨는 다시,

"아네요, 작년에도 왔다 갔는데 방카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시티 인포메이션 직원이라서..."

이해된다. 아마 그녀는 정기적인 배나 지역 주민을 위한 공식적인 운항편 밖에 모르겠지. 경아씨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 배 값이 얼마가요?"

"비싸지 않아요. 일인당 6-700 할 겁니다. 엘니도 부틱 앤 아트 카페에 가면 거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하, 론리에 소개 되었던 그곳. 유럽인이 운영한다는 곳. 15000p에 방카를 빌려서 부수앙가까지 간다지? 그럼 일인당 그정도 나오겠구나... 그럼 그렇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답다는 엘니도에 다 갈텐데 배편이 없을라고.

공항을 나와 잠시 걸으니 트라이시클기사가 부른다. 까사린다 호텔을 말해 주니 1인당 7페소에 가겠다고 해서 냉큼 집어탔다. 역시나 자기네 호텔을 소개하며 까사린다가 방 없으면 생각해 보라고 하는군. 세련된 빠깁데. 까사린다는 인기있는 숙소라 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4명이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남았단다. 트라이 기사는 우리가 방을 못 잡길 바랬을텐데, 방을 잡아 놓으니 아쉽게 되었겠지. 우리가 막 방을 잡으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 왔다가 발길을 돌린다. 같은 비행기로 온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방을 잡았으니

다들 놓친 거다.

카운터에 지하강 1일 투어를 예약하고 내친 김에 모레 엘니도 가는 밴(인당 700페소)도 예약했다. 버스로는 9시간, 밴으로는 6.5 시간 정도 걸린단다. 경아씨랑 나 둘 뿐이라면 괴롭고 짠 버스(대략 400페소)를 타겠으나 어머니까지 계시고, 이미 세부에서 세레스 라인의 좁은 버스를 세시간 탄 것도 힘들었는지라...

숙소는 아름다운 정원에 시원한 오두막이 있고, 방은 목재로 된 전통적이며 아름다운 곳이다. (1500페소/4인)에어컨 있고 널찍하여 네 명이 들어가도 전혀 좁지 않다. 숙소를 잡아 놓으니 마음이 편안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시내구경을 나갔다. 숙소에서 리잘 애브뉴를 따라 쪽 걸어 보니 꽤 변화한 곳이다. 팔라완에서 유일하게 ATM이 있는 곳이라나? 길가에 차오롱(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식당이 보여 반가와하며 들어갔다. 이곳 외곽지역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정착지가 있다 하고 차오롱은 그들이 퍼뜨린 음식인데 제법 인기가 많다고. 쇠고기,돼지고기 국수를 여럿 시키니 먼저 향채와 숙주가 나온다.

"와, 진짜 베트남식이야! 향채 더 주실수 있나요?" 하니 "예!" 하고 한 그릇을 더 주신다. 쌀국수엔 숙주 듬뿍 넣어 먹는게 그만이지. 잠시후 나온 뜨거운 쌀국수. 매운 소스도 주셔서 확 뿌려 먹으니 진짜 베트남 길거리에서 먹던 그 맛이다! 어제 일식집 라멘은 일본 사람이 아닌 나도 화날 정도로 엉터리였고 비싸기만 했는데 이 국수는 45정도의 값에 양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맛이 그만이다. 게다가 시원한 물도 공짜! 네명 다 그릇을 싹싹 비우고 맛있다고 인사하고 나왔다.

둥글게 지어진 독특한 모양의 시청을 지나 쪽 걸으니 NCCC라는 큰 슈퍼마켓도 보이고 더 한참 걸으니 간이 지프니 스테이션이 나온다. 유심히 살펴 봤더니 SAN JOSE-New Market 이라 씌인 게 있길래 타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 봤더니 산호세(버스터미널)가 는 게 맞댄다. 엘니도 가는 버스를 타려면 이 지프니를 이용해 터미널에 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밴을 예약했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만 알아 두어야겠지.

■ 2010-1-18(월)

새벽 6시 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고 어제 산 맛있는 빵을 먹은 후(위에 마가린과 코코넛이 얹힌 최고의 빵) 기사를 기다린다. 6시 40분에 가이드와 기사가 픽업하여 수녀님 세 분과 현지인 언니 2명을 더 태우고 출발했다. 우리가 타기 전에 이미 네덜란드인 아이나르가 타고 있었다.

사방 가는 길은 우리 기업인 한진에서 포장했다. 가끔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길이다. 자연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푸에르토는 80%가 숲이고 환경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는 깨끗한 곳이란다. 모든 길에는 큰 쓰레기통이 있고 자꾸 버리면 감옥에 간단다. 가이드가 유머있는 사람이라서 공짜 음식에 잠잘 곳, 여자, 공짜 타투가 제공되는 감옥에 간단다.



1시간 반 후 사방의 마을 해안가에 도착했다. 우리 숙소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수영복을 속에 입고 왔는데 바람이 강한 곳이라서 파도가 높다. 겨우 몇 명만 물에 들어가 있다. 일찍 왔다면 이곳에 숙소를 정했을텐데. 탄자니아 말라위 호수의 마테마 비치같은 느낌이 나는 평화로운 해변이다. 오늘은 햇볕이 비치면 무척 따갑다. 잠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6명 씩 방카보트를 타고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해변이다.



내려서 조금 걸어가 강에서 대기했다가 노젓는 배를 타고 지하강, 정확히는 물이 들락날락하는 산 아래의 동굴로 들어간다. 커다란 랜턴으로 맨 앞 사람이 뒤의 노젓는 가이드가 방향을 말하면 그 쪽을 비춰 주어야 한다. 남편과 내가 앞에 앉아서 비춰야 했는데 말이 잘 안들린다. 설명은 거의 못듣고 어디를 비추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했다. 대신 앞 자리는 전망이 좋다.



여러 종류의 박쥐들이 넓은 동굴의 천장에 바글바글 매달려 있

고 여러가지 형태의 종유석들을 가이드가 무슨 모양(코끼리, 뱀, 예수 얼굴 등)이라고 얘기해 주면 보는 방식이다. 특이한 점은 현재 종유석이 자라고 있는 상태라 물이 떨어지든 돌은 반짝거린다. 떨어지는 참 것은 물이요 따듯한 것은 박쥐 배설물이라 입을 벌리고 천장을 쳐다보면 안된다. 자연 그대로의 동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랜턴의 불빛이 강해서 깨어나는 박쥐들이 있었다. 줄 지어 배가 안으로 교대로 들어와 구경을 하고 나간다. 45분 정도 1.6km의 동굴탐험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이다. 강이 민물일 것이라 상상했었는데 바닷물이 들고 나는 형태의 굴이다.



잘 구경을 하고 나온 후 맹글로브 투어를 하러 갔다. 고요한 맹글로브 숲을 보트로 들어갔다 나온다. 나무는 금방이라도 일어설 듯한 모습으로 바닷물에 뿌리를 박고 있다. 고고하고 멋지게 하늘 거리는 맹글로브의 모습들이 마음에 든다. 이 나무가 있어서 바다의 게, 물고기, 조개 등 많은 놈들이 살 수 있다. 아마도 썩은 나무 등걸 속에 '따밀록'이라는 통통한 애벌레가 사는가 보다. 이곳의 최고 별미 음식인데 맛은 굴 맛이라고 한다. 엄마와 나는 튀겨주는 줄 알고 한번 먹어볼까 했었지만 잡아서 생으로 먹는 거라니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다. 수녀님들과 언니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못먹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낙지 정도의 느낌일까?



들어갈 수록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나무 위에는 맹글로브 독사가 포아리를 틀고 자고 있기도 하고 나무에는 열매도 맺혀 있다. 고요한 숲을 잘 감상하고 도착할 즈음에 가이드 아저씨들이(사실은 할아버지) '우리가 맹글로브 숲을 사랑하고 잘 지킬테니 다음에도 오세요'라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준다. 배에서 내리면 맹글로브 나무를 기념식수하고 나온다.



팔라완의 투어는 현지인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의외의 상황이다. 우리는 외국인들만 모여 돌아다니는 오지스러운 분위기를 상상했었다. 그러나 정 반대이다. 이 섬은 필리핀인들에게도 제주도 같은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 아이나르는 친구를 해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남고 나머지는 모두 이 투어에 참가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이르게 도착하여 차에서 아이나

르를 기다리는데 멀리 해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주섬주섬 바지를 꺼 입는 모습을 작은 수녀님이 찍었다. 덩치가 커서 작은 수영복에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재밌기는 했으나 수녀님이 그렇게 짓궂을 줄은 몰랐다. 모두 찍은 사진을 돌려 보며 엄청 웃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수녀님들처럼 우아하고 고요한 분들이 아니라 아주 명랑하고 귀여우시다. 아이나르가 와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뭐 하고 있었나?" 물었더니 투어 얘기를 하신 후 '홀랜드 액티를 보고 있었다. 그게 뭐냐고 의아해 하니 그 사진을 보여 주며 설명을 하셔서 다시 모두 깔깔거렸다.

돌아와서 금고에 맡긴 전대를 찾아 투어비를 지불하고 짹짹 돈을 환전하러 떠난다. 세 곳 정도를 비교해 보았으나 다 똑같다. 시장에서 파파야만 사고 NCCC에서 빵과 술을 산 후 1,200 달러를 환전했다. 숙소에서 카운터에 물었다. "딸이 뒹고 자는 타올 이불 큰 것은 어디서 샀나요?" 했더니 NCCC 3층에서 샀다고 한다. 엄마와 나, 해안은 이걸 사러 다시 부리나케 나왔다. 7시면 문을 닫는다는데 6시 10분이다. 3층 타올 코너에는 안타깝게도 그 제품이 없었다. 2층에서 엄마의 냉장고 티만 열심히 골라 하나 산 후 (무척 맘에 드시는 듯하다. 5,000원 정도로 이곳의 옷들은 주로 중국산들이다. 이곳 여자들이 워낙 작고 호리호리해서 신이나 옷은 안 사는 것이 좋다) 트라이시클로 돌아왔다.

전기가 나가 버려서 잠시 후 발전기가 돌아간다. 그 바람에 에어컨을 돌릴 수 없다. 더워서 실내에 있기도 힘들지만 나가면 더 시원한 대신 모기가 극성이다. 참고 앉아서 수박을 먹다가 카운터에 물었더니 발전소에 전화를 했단다. 언제 들어올 것 같냐고 하니 지난 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전기가 안들어 왔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히 잠시 후 숙소에서 전기가 들어와 에어컨이 돌아간다. 어떻게 밤을 버틸까 싶었는데. 남편과 나가서 닭을 사고 죽을 먹은 후 돌아왔다. 엄마와 해안을 위해 죽을 포장해 왔다. 맛있게 닭을 먹었다. 해안이가 사온 엄마옷을 입고 패션쇼 흥내를 내고 남편이 사진을 찍어 보면서 얼마나 웃었던지 배가 아플 지경이다. 이 숙소가 넓고 질 좋은 마루라서 바닥에 맨발로 다닌다.

6. 엘 니도 (Bacuit Archipelago)

■ 2010-1-19(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온다는 밴은 7시가 되어야 온다. 정월 해먹에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기도 하고 다른 식구들은 카운터 앞 의자에서 기다렸다. 외국인들을 바리바리 태우고 가다가 터미널에서 짐을 차 위로 올린 후 출발한다. 우리는 맨 뒷자리에 앉았고 엄마는 중간에 앉으셨다. 뒷자리는 하나 더 억지로 만든 것이어서 무척 좁아 무릎이 딱 끼어 몹시 불편하다. 셋이 끼어 앉아 여러가지 형태로 앉는 방식을 바꿔가며 가히 몸부림을 치며 간다.



바깥 풍경은 좋다. 로하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긴 가촌이다. 바닷가 쪽에 점심을 먹으라고 내려주는데 가격이 반찬 한가지에 80이나 한다. 일찍 왔더라면 로하스에서 잘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볼 것이 없는 마을이다. 바다도 갯벌 해안 이어서 몹시 탁하다. 대충 먹고 출발하여 드디어 비포장도로로 달린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머리를 천장에 박거나 좌우로 획획 기울어

져서 구석에 박히거나 한다. 남편은 특히 졸다가 여기 저기에 박는다. 타이타이는 더 볼 것이 없는 작은 가촌이다. 이런 곳이 예전의 수도였나 싶을 정도이다.

우여곡절 끝에 1시 반에 엘니도에 왔다. 다시 외국인들과의 숙소 경쟁이 시작될 터. 남편과 엄마의 짐이 차 위에 실려 있어서 짐을 내린 후 엄마와 천천히 오고 나와 해안은 가장 인기 좋은 로잔

나에 빨리 가기로 하여 서둘러 걸었다. 이 집은 900 정도라고 책에 나왔는데 1,500 과 1,700짜리 밖에 없다. 무지 비싸다. 그리고 깨끗하게 지은 다른 새 숙소는 1,250 정도. 그러나 운이 좋게도 바닷가의 전망 좋고 발코니 있는 숙소를 900, 1000에 얻었다. 엄마방은 새로 지어서 약간 비싸고 더 좁다. 여주인에게 물으니 코론 가는 배는 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그럼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가야 한다고? 황당할 따름이다. 그래서 투어와 배를 알아보고 마을도 살피러 서둘러 나간다.

'엘니도 부틱 & 아트 갤러리'에 가서 코론 배를 알아보니 모든 요일에 다 있고 가격은 2,200 이다. 참으로 황당한 가격이다. 완점 독점 가격이니 빼도 박도 못하고 외국인은 가거나 아님 말거나다. 만약 다시 푸에르토로 간다면 마닐라 가는 비행기표를 다시 사야 하고 거친 길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한다. 부슈양가에도 볼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여 원래 계획대로 3일간 아일랜드 호핑 투어 A, B, C를 다 하고 토요일에 코론으로 갈 거다. 돈이 엄청 들겠다.

여기는 물가도 비싸 수박 한덩이를 170에 샀다. 그리고 이상한 뭉 애플이라는 과일과 오이를 샀다(과일이 비싸서 한번 오이나 먹고 살아볼까 해서 샀는데 짧고 통통하다. 씨가 커서 맛은 그닥이다). 우리 방 앞이 바로 바다라서 모두 바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물이 따듯한 것 같더니 좀 있으니 추워진다. 게다가 물은 모래가 많이 섞여 혼탁하여 서해 바다 같다. 아마 다른 계절에 맑아지나 보다. 와서 샤워하고 뭉 애플을 먹은 후(약간 커스터드 애플이나 감 맛) 모두 마을에 나갔다. 아까 그 부틱에 가서 언제까지 표를 사야 하나 물으니 이틀 전에 사고 환불비는 200을 제외하고 1명이라도 배는 뜬다고 한다.

마을을 돌며 내장, 돼지껍질, 돼지고기 꼬치도 먹고 갓 구운 빵과 바나나도 산다. 어느 밥집에서 먹을까 찾다가 허름하다 싶은 곳을 들어 갔는데 반찬 하나에 50, 밥은 15나 한다. 바가지 쓴다 싶으면서도 그냥 먹는다. 무지 짜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모든 것에 바가지가 있는 듯 하다. 돌아와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 보고 놀다

가 엄마가 산책에서 돌아오신 후 과일 먹고 빨리 자기로 한다. 내일은 9시 출발이다. 우리 방은 전통적인 숙소여서 화장실도 천장 옆이 땡 돌렸고 바닥으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어(모래가 보인다) 우리는 모기장 안에 갇혀 있다.



■ 2010-1-20(수)

벌써 여행이 종반으로 접어 들고 있다! 추운 겨울 나라로 돌아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제 밤에 이웃 방의 현지인들이 돌아 왔다. 벽이 얇은 대나무 엮은 판이라 어찌나 잘 들리는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지경이다. 아마 엄마가 오늘 옆으로 오시면 그 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러웠으나(특히 여자 아이가 징징대는 소리.. '에어플레이인'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나 아이를 야단치는 어른은 없다! 우리 같으면 한대 맞았다!) 피곤하여 너무도 잘 잤다. 저녁 8시부터 자서 허리가 아플 정도.

남편이 밤 9시 반 정도에 마을에 나가보자 하였으나 너무 잠이 와서 그냥 잤다. 보라카이처럼 외국인들이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다고 한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오기 쉬워진다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콩알 만한 이곳이 난개발되고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 허접한 쇼들... 제발 그런 나이트 라이프는 그만 해줬으면.. 특히 론리 플래닛이 요걸 부추기는 느낌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12시가 좀 넘어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화장실에 가야 했다. 완전 오지의 마을에 온 느낌이다. 새벽 4시 쯤 부터는 사람들 말 소리도 들리고 잠이 깬는데 칠흑같은 어둠 속에 불도 안들어 오는데 뭘 하겠나. 허리가 아픈데 억지로 자고 또 자서 희뿌옇게 밝이 보일 때까지 잤다.

일어나 6시에 해변으로 나갔다. 벌써 엄마는 나가신 상태. 아래 쪽 해변으로 걸으며 혹시 바깥 숙소가 있을까 보았으나 모두 별로이다. 비싼 리조트들도 전망이 좋지 않고 항구 쪽의 싼 숙소들은 꾸질하고 오래된 건물들이다. 게다가 독을 쌓아 해변으로 바짝 나와 있어서 해변이 몹시 좁아졌다. 그저 우리 숙소가 최고였다. 발코니를 바다 앞에 둔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 '바나 레스토랑 정도라고 할까. 우연히 찾아 온 숙소가 최고가 될 줄이야. 그리고 방 마다 포트와 커피잔을 주어 따뜻한 커피나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 지금도 바다를 보며 커피와 과자를 먹고 있다. 엄마는 수영하고 계시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아침으로 엄마가 사오신 과자, 어제의 과일, 남은 과자 등과 커피, 진정한 컵라면(컵에 부수어 물붓기)을 먹었다. 제법 속이 든든하다.

8시 40분경 4인용 작은 방카 보트가 왔다. 우리만 떠나는 거다. 환경 보존 티켓 4장을 사고(1장 200으로 유효기간은 10일) 핀 2개와 스노클 3개를 빌렸다. 아저씨가 밥을 가져오시느라 약간 기다렸다가 출발. 차양을 쳐달라고 했더니 오늘 파도가 높아서 펼 수가 없다. 알아서 뒤집어 쓰고 다니는 수 밖에... 내해를 벗어나니 파도가 커진다. 그래도 방카 보트가 안정적이어서 뒤집어질 일은 없고 아저씨가 파도를 타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신다. 바닷와 벗해 오래 살아온 이 사람들의 노하우가 담긴 운전 실력이다. 물을 탄다고나 할까. 아주 깊은 바다라 색이 시푸르둥둥한데도 바다의 표면이 깊이가 느껴지기 보다는 무슨 천이 퍼덕이고 휘청거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미니록 아일랜드에 간다. 출발 직전에 오늘은 스노클링인데 무슨 신이 필요하겠느냐면서 모두 두고 왔는데 바닥이 허걱스럽다. 얇은 바다에 내려 주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수심은 깊고 바위 사이에 난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작은 라군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신발이 없어 걷기가 너무나 힘들다. 발이 아픈 걸 겨우 참으며 걸어야 했고 남편은 카메라 가방까지 지고 나왔는데 물 속에서 몸이 휘청휘청. 게다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헤엄쳐야 한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 우리를 이끌고 가는 청년이 카메라 가방을 한 손으로 높이 치켜들고 다른 한손으로 헤엄쳐서 그 구멍을 통과한다. 대단하다! 나머지는 하나씩 수영을 해서 구멍으로 들어갔다(들어갈 땐 아무 생각없이 편히 헤엄쳐 갔다가 올 때는 물안경을 끼고 보면서 나오게 되어 깊이가 아득하게 느껴져 더 무서웠다. 내부의 라군은 갑자기 알아진다. 더 안쪽은 깊다. 모래가 일궈지면 꽤 뿌옇게 일어난다. 딱 한 눈에 보면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풍경이다. 주로 바위 쪽 아래의 경치를 보니 물고기들이 보인다. 그런데 납작하고 유선형 모양의 흰 물고기를 보았는데 나를 뻔히 쳐다보며 살피더니 나중에 뒤돌아 갈 때 왼쪽 무릎의 뒷살을 뜯는다. 제법 따끔할 정도로 무는 걸 보니 꽤 공격적인 놈이다. 남편과 엄마는 오리발을 끼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나는 해안이와 함께 있었다. 다시 구멍을 통과하여 나와 어렵게 물속을 걸어 배에 탔는데 엄마는 손이 까지고 해안이는 걸다가 발을 찢려 피가 난다. 그래도 구급약이 있어 밴드도 붙였다.



다시 배를 타고 움직여서 'Simisu Is'에 갔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에워 싸여진 지형 뿐이고 작은 해변이 있는 곳이다. 파도가 거칠어서 잠깐 들어가 보고 나왔다. 엄마와 남편은 더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죽었지만 하얗게 바랜 상태는 아닌 산호들로 그득하단다. 밖에서 볼 때는 바위처럼 보였는데 그게 다 산호 죽은 애들이

었다. 하얀 해변에 앉아 사방을 보면 정말 꿈에서나 볼 듯한 근사한 풍경이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관광이라는 걸 한다니 참... 섬에 떨궈져서 캠핑을 하고 다음 날 테릴러 오는 방식도 있다. 아마 무한도전이나 도전 지구탐험대에서 보았던 무인도 체험이 이런 곳이라. 이렇게 낮에 보는 것은 멋지지만 글썽 밤은 어떨지... (좁은 해변에 파도 소리 가득하고 캄캄한 사방에 시커멓고 깎아지른 수직 절벽밖에 없는 이곳...풍량이 오면 피할 곳도 없다..)

보트맨 아저씨는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쉬었다. 바다에서 밀려 들어온 씨앗들도 살피고 한가히 앉아 해변도 본다. 바람이 거칠어 몸이 춥다. 엄마는 물 속에서 스노클링하다가 성게 가시에 찔려 깊이 가시들이 박히고 부어올랐다. 그래도 오빠가 응급 처치 방법으로 가솔린에 담그게한다. 고통이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아침 일찍 출발한 덕분에 이 섬에 처음으로 와서 제일 좋은 그늘에 근사한 식탁이 차려졌다. 닭과 돼지고기, 오이와 양파, 토마토를 넣은 샐러드와 새콤달콤하게 야채와 토마토를 넣어 만든 간장과 바나나가 있다. 고기가 좀 부족한 듯 하기도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 사강 투어와 같은 과식은 안해서 더 속이 편했다. 좀 비싼 투어는 생선구이와 수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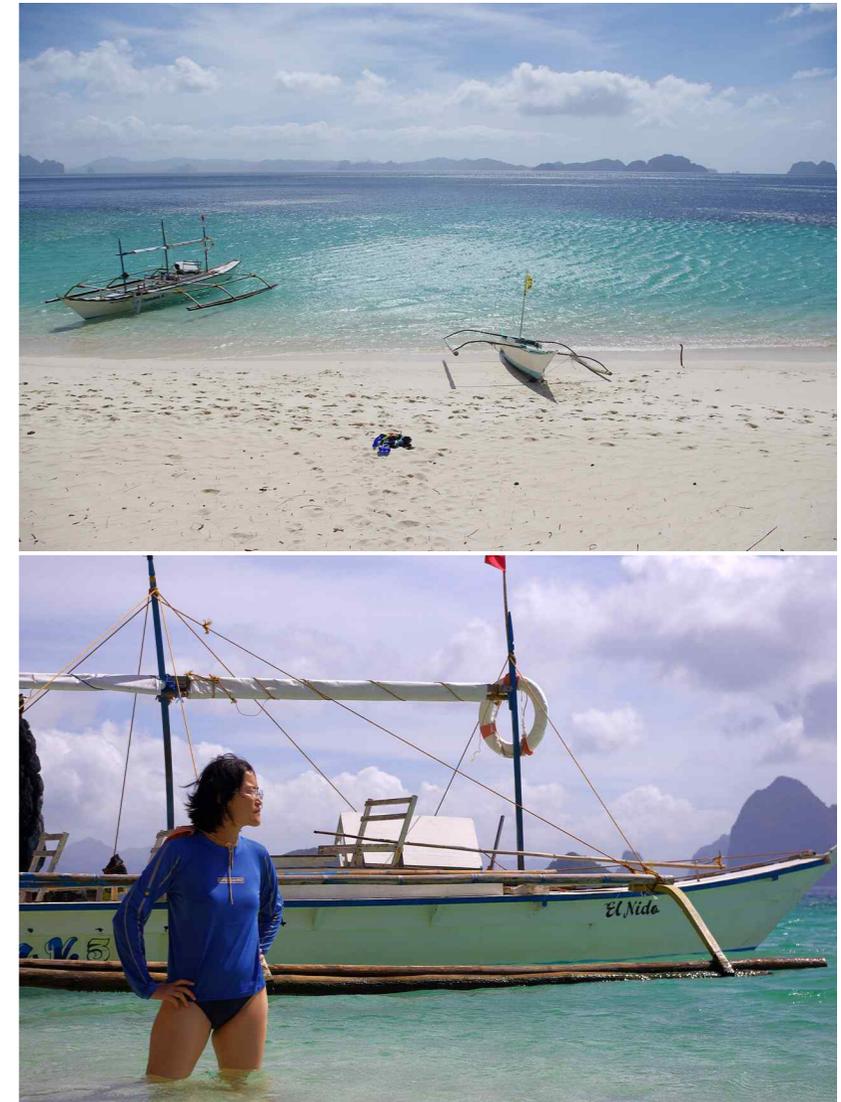


점심 먹으러 속속 사람들이 섬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시 떠나서 바다로 간다. 그 섬의 다른 한쪽 편의 빅 라군으로 간다. 역시

넓지 않은 입구를 배로 들어가는데 물이 얇아지면서 환상적인 물빛이 색깔로 펼쳐진다. 빅 라군은 크기가 넓은 에워쌓여진 물살이 잔잔한 곳이다. 마치 영화 '아바타'의 풍경이 현실 속에 있는 듯 높은 절벽에 자란 나무들과 맑은 햇살 속에 투명한 대기가 느껴져서 멀리 산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이 햇볕에 빛난다. 꿈 같은 풍경이다. 배낭여행으로 이런 오지의 섬에 올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치이다. 배로 한 바퀴돌고 다음 섬으로 간다. 바깥 쪽으로 나갈 수록 파도가 더 거칠어져 우리를 덮치는데 완전 영화같다. 앞에 앉은 남편과 나는 배가 출렁일 때마다 물벼락을 계속 맞다가 나중에는 너무 추워 둘 다 슬슬 눈을 감고 앉아 있다.



'7 commando 비치'(엘니도 타운 절벽 건너편)에 접근해서야 파도가 슬슬 낮아진다. 해변은 짙은 옥빛이지만 가파르게 깊어지기 때문에 물놀이 보다는 스노클링이 적합한 곳이다. 이 섬에는 과자와 음료를 파는 곳이 있다. 엄마는 오빠가 뜨거운 물을 컵에 얻어다 주어 손가락을 담그고 있었다. 며칠 지나면 알아서 가시가 빠진다고 한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스노클링을 한다.



바람이 많이 불어 젖은 채 앉아 있으면 추워서 차리리 물 속에 담그고 있었다. 바위 주변 쪽으로 오리발을 끼고 쪽 들어 가면 형형색색의 나비고기, 나를 문 그놈, 새파란 고기 등이 있다. 남편은

하얗고 빨간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니모를 찾아서에서의 그놈이 말미잘 사이에서 놀고 있음)를 보았다. 처음에는 구멍 조끼가 있는 것이 안심이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스노클링을 하면 몸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 깊을 수록 부력도 생기고 오리발을 끼면 속도가 많이 붙는다. 몸이 추워 더 있을 수가 없어 엘 니도로 돌아간다. 잔파도가 일고 물방울들이 달려와 얼굴을 때린다. 꽤 아프다.

숙소 앞에 내려줘서 바로 들어와 샤워를 했다. 찜물이어도 마르면 몸이 뽀송하고 민물에 대충 씻어도 깔끔하다. 우리는 이 섬의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머리에 만 약간의 비누를 쓰고 몸은 그냥 행군다. 입었던 옷은 물에 담궜다가 그냥 낸다. 오징어를 먹다가 해안이가 우리 베란다가 경치가 좋으니 밥을 사다 여기서 먹자고 한다. 아줌마네 집에서 아침에 이웃이 밥을 먹는 걸 봤기에 뭘 팔고 얼마인지 묻고 오라고 했다. 아줌마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 이웃집에서 판다. 해안이가 알아보고 와서 바나나꽃 셀러드가 25이고 밥은 10 이란다. 해안과 아빠가 가서 골라왔다. 아예 쟁반에 음식들을 다 담아왔는데 밥도 반찬도 양이 많다. 셀러드, 고기, 녹두콩 합쳐 겨우 110이다. 맛도 좋고 푸짐하다.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먹게 될 듯. 아직 음식이 덜 만들어져서 내일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다.

우연히 길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이들과 같이 내일 투어를 하기로 했다. 오늘 그 오빠와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배가 바뀐다. 가이드 해 준 사람도 바뀔지 모른다고... 낮에는 어떻게 다 돌까 했는데 어찌어찌 끝났다. 남편은 얼굴도 많이 별개지고 몸이 확확한데 이 투어를 다 끝내면 어찌될지. 나도 입술이 건조해서 바짝 마른다. 엄마, 남편과 함께 해변의 어두운 곳에 별을 보러 나갔다. 엄청 많은 별들이 떴다. 그래도 러시아의 후지르 마을의 별이나 몽골 초원보다는 살짝 덜 하다. 아마 주변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때문일 듯. 잔잔한 바다 위로 그림처럼 펼쳐지는 하늘은 신비롭다.

저녁 늦게 엄마 목소리가 밖에서 두런거리려 나가 보았다. 마당에는 투어를 같이 한다는 젊은이들과 50대 아저씨 한분이 계셨다. 이 젊은이들이 비행기표를 끊는데 카드가 없다고 해서 같이 PC방에

갔지만 결제가 잘 안되어 그냥 왔다. 나이 드신 분은 버스정류장 옆의 엘니도 가든 사장님이다. 우연히 엄마와 이 숙소에서 만나 이분이 엄마에게 커피를 한잔 사주고 계신 중. 벌써 30년째 이곳 필리핀에 사시면서 느낀 여러가지 일들을 얘기하신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다운 성공담이기에 듣기에 좋고 흐뭇하다. 낮은 지대의 땅을 사서 어쩔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버스정류장 공사를 하며 파낸 산지의 흙으로 매우고 세웠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이 14년 전만 해도 푸에르토에서 16시간 정도 걸리던 오지였는데 길이 닦이고 고급 호텔들이 들어서게 만든 장본인이자 개발이 시작되도록 한 분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게되고 고급호텔도 장사가 잘되자 마을의 집들도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1, 2년 전 부터 숙소의 가격이 거의 두배로 폭등했다는 것. 물론 길이 닦이며 우리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멋진 경치를 보게된 것이겠지만 보라카이 같은 유명관광지가 된 이후의 엘니도는 어떤 모습일까. 작은 해변은 계속 개발되고 물은 오염될 것이다(우리 숙소에서 사용되는 오수가 그대로 빠져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2년 후에는 푸에르토에서 4시간이면 오게 되고 더 좋아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은 밤이었다.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엄마는 물속의 것들을 함부로 만지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오늘 성계에게 쓰인 얘기를 하니 이곳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아 꼭 발등을 덮는 신발을 신고 다닐 것과 아무거나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신다. 모래 속에 납작 엎드린 물고기를 건드렸다 쓰여서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고생하셨고(진통제 7대를 맞아도 소용이 없더라네..). 10여년간 발등이 가라앉지 않아 발이 짹짹이 앓았단다. 요 말씀 덕분에 엄마는 조심하시게 된 것이 큰 소득이다. 어떻게 물 속의 물고기를 자꾸 잡는다고 그러시는지... 신기하면 만져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려고 나타난 귀인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쓰이면 알코올과 뜨거운 물을 섞은 액체에 담그면 고생을 쉽게 면할 있다는 귀한 정보를 얻었다. 오늘 청년의 급처방도 대략 비슷했다.

■ 2010-1-21(목)

이 숙소의 닭새끼들 때문에 아침에는 더 이상 오래 잘 수가 없다. 요놈들 푸에르토에 까지 가서 시합하는 투계들이다. 해안이는 넘 시끄러워 5시 부터 잠을 못 잤다며 확 없애버리고 싶단다. 뭐 그렇게 까지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분들이다. 또한 파도소리, 첫날은 뭐 집어 삼킬 듯 들리더니 지금은 자장가 같다. 언제 파도가 철썩이는 곳에서 낭만적으로 자겠나...

아침 6시에 일어나 항구 반대쪽으로 걸어 보았다. 엘니도 가든 호텔 안에 들어가 보려다가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어 살짝 보았다. 멋진 숙소이다. 방 하나에 18-25만원이다. 어제 그 사장님은 그래도 방이 없다고 했다. 1년 내내 사람들이 꾸준히 온다고... 해변의 대형 호텔 쪽부터는 모래의 질이 거친 입자로 바뀌고 잔돌들이 잔뜩 깔려서 놀 수 있는 해변이 아니다. 역시 우리 숙소가 짱이다.



아침에 숙소 건너편의 맛있는 밥집1에서 해안과 남편이 밥을 주문했다. 잠시 후 아저씨가 아지 두 마리와 생선국, 밥 2인분을 쟁반에 담아 날라 오셨다. 헤! 우리 방 앞 발코니에 편히 앉아 바다를 보며 먹는 아침이란... 이런 호사가 있다. 생선은 깔끔하고 잡내가 없다. 또한 생선국의 구수함과 야채의 맛이란... 생선 좋아하시는

엄마는 펍 만족해하신다. 참! 우리와 같이 하려던 투어팀이 취소되어 다시 오붓하게 떠나게 되어 다행이다. 남 신경쓰지 않고 맘대로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어제 사장님의 충고대로 발등까지 덮는 신발들을 챙겨 신는다. 어제보다 더 짙은 아침 햇살이 작렬하고 더 잔잔한 바다가 우리를 반긴다. 게다가 채양이 펼쳐진 큰 배는 시원하고 안정적이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엘니도의 앞바다도 멀리까지 물 속의 모래가 들여다 보인다.



파도가 많이치는 첫 섬은 사설해변 옆의 작은 해변이다. 사설해변에는 출입금지. 이 해변의 풍경은 펍 아름답다. 물에 들어가 보았

으나 별 거 없고 파도가 세서 잘 놀 수가 없다. 엄마는 오늘은 좀 피곤하신 듯 조개껍질만 줍고 다니신다. 두번째는 제법 넓은 해안이 펼쳐진 곳에서 좀 떨어진 5미터 정도 깊이의 스노클링 포인트이다. 물이 파도 때문인지 살짝 탁해 보인다. 안경에 물이 차올라 오리발 끼고 좀 멀리 갔다가 돌아 오는데 애 먹었다. 겨우 올라와 혈떡거리고... 엄마는 거의 물속에서는 물개 수준으로 돌아다닌다.



다음으로 간 'Snake is'는 뱀처럼 긴 섬일 줄 알았는데 작은 꼬마 섬이 모래로 띠를 만들어 큰 섬에 이어진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양쪽에 파도가 쳐서 얽은 물 사이에 사주가 생겨 구불구불한 뱀 모양의 띠가 만들어진 곳이다. 작은 섬의 왼쪽은 모래가 퇴적된 곳부터 잔잔하게 바다로 이어지다가 해초로 푸르스름 해지고 오른쪽은 얽은 옥빛바다가 펼쳐진다. 사람이 꿈 속에서나 상상할 법한 환상적인 풍경이다. 뱀모양의 끝에는 예쁜 맹글로브 숲이다.

엄마는 잔잔한 물 속에서 쉬고 있는 피조개를 세 개나 주웠다 (구워먹으니 우리 것 보다 쫄깃하지만 분명 피조개다). 지글지글한 태양, 쏟아질 듯 푸른 하늘, 꽃 같은 잎을 가진 맹글로브(잎의 맛은 아주 살짝 간간하다. 짠 물을 빨아들이고도 별로 짜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신비한 색깔의 바다 모두 멋지다. 작은 섬 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다. 맹글로브 숲속 모래 위에 마련된 점심은 푸짐하게 구운 생선과 닭으로 대박 진수성찬이다. 엄마는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좋겠다 하시지만 간장을 뿌려가며 열심히 맛있게 먹었다. 잡내가 없어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식사 후 오른쪽 바다 속 관찰하기. 밖에서 보면 안에 단순히 모래가 펼쳐진 것 같지만 물 속에는 살짝 초콜렛 색이 감도는 봉긋한 작은 봉우리들이 많다. 작은 물고기가 봉우리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기도 하다. 신경 안쓰고 얇은 물을 마구 걸어 다니면 애들의 집을 파괴하는 거다. 살포시 나와 이번에는 왼쪽의 물 속 관찰. 일단 얇고 온천처럼 따듯하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흐뭇한 물이다. 너무 얇아 한참 들어가면 물속에서 해초들이 나란히 살랑거린다. 이번에는 청년이 가고 부를 때까지 놀았다.



네번째 섬은 동굴에 간다. 밀물에는 입구가 막히는 곳이다. 작은 구멍을 몸을 조심하여 누우며 들어가면 넓은 장소가 나온다. 예전에는 아마 누가 안에서 쉬기도 했을 듯 아늑하다. 신비하고 멋진 곳이었다. 그곳의 한 구멍의 땅 속에서 대량의 금이 2천년에 발견되었단다. 지형이 신비로운 곳이다. 이곳에서 엘니도 비치 호텔의 여사장님을 만났는데 큰 호텔은 다 한국인 소유임을 확인한 순간.

발빠르고 역센 한국인들... 이제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극성스러울 수는 없겠다. 작은 입구에서 나올 때 엄마가 아래로 슬쩍 떨어지며 모래 위를 무릎으로 떨어졌다. 바로 옆에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는데 무릎이 뽀족한 바위에 떨어져 버렸으면 어쩔 뻔

했다. 우리는 아빠가 도와서 살짝 빗겨 떨어지게 했다고 다행이라 생각했다.



마지막 섬은 해안에서 바로 5미터 정도만 들어가면 절벽이 이어지는 지형이다. 그래서 물 색이 맑은 옥색에서 검푸른 진초록으로 극 대비를 이룬다. 남편, 나, 엄마가 교대로 들어가 담력 훈련을 했다. 처음엔 저릿했으나 나중엔 그냥 볼 만한 정도. 그러나 결코 오래 보고 싶지 않은 곳이다. 주변을 산책하면 고운 모래며 열대 특유의 아름답고 고즈넉한 풍경이 멋지다. 야자나무가 파도에 스러져 쓰러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야자 숲에 비치는 그윽한 햇살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다시 엘니도로 돌아 온다. 날마다 신비한 곳을 보여 주니 당연히 내일 '투어 C코스'도 약속한다. 엄마는 오늘 물이 차게 느껴지고 안 좋다며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위에 부딪힌 손도 많이 부었다. 피곤하시다고 밥도 싫다고 한숨 주무시고 우리는 배표를 사러 갔다.

맛있는 빵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여 코코넛 소가 들은 빵을 우물거리며 동네의 부딪 2층에 갔다. 비싼 가격에 배가 아프지만 확실히 출발을 보장하는 표인데다가 우리까지 현재 10명의 사람들이 끊었다. 7시 반 출발이다. 운행되는 세 종류 크기의 배 중 중간 것 30인승 방카 보트가 토요일에 간다. 가장 작은 배는 안습이다.

탄자니아에서 샀던 새콤한 덩어리 과일과 뽕 애플을 산다. 맛난 빵집에서 여러 종류를 골고루 사고 아저씨 밥집. 우리가 좋아하는 바나나꽃 샐러드, 장조림과 밥을 직접 쟁반에 들고 왔다. 점심 때 남은 아지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엄마는 나중에 일어 나서서 빵과 커피만 드신다.

같이 산책을 나가 호텔 아래 쪽 마을에 갔다. 해변이 좁고 한적하다. 안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다. 그 안에도 숙소가 있는지 여행자들이 속속 들어간다. 해안가를 따라 걸어 돌아와 약국을 찾아갔다. 그냥 염증으로 인해 부은 것으로 보인다. 별 통증은 없다고 하시니 소염제 연고를 사서 발랐다. 엄마는 산책을 너무 오래 하셔서 진이 빠지지 않나 싶다. 좀 쉬면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완전 끝장을 본다. 한숨 자고 일어나 일기를 쓴다. 오늘 너무 많이 타서 남편의 다리와 얼굴도 대단하지만 나도 얼굴이 별겉고 얼룩덜룩 해서 대단하다. 모자를 쓰니 아래쪽이 더 타서 입과 턱주변이 가장 따끔거린다. 골고루 타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그라데이션이 생기다니 참... 게다가 안경까지 쓰고 있어 그 부분은 안 타고 아주 우습다. 파도 소리 '와아아아...' 하고 달려와 부딪쳐 철썩인다...



■ 2010-1-22(금)

엘니도의 마지막 투어 날이다. 6시 40분에 남편과 학교 쪽으로 산책을 갔다. 엘니도처럼 작은 마을에 광활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라... 가히 하나의 마을이 설 수도 있는 규모의 운동장이다. 잔디가 덮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잡풀을 잘 깎아 놓은 푸른 벌판이다. 아이들이 속속 등교 중이다. 절벽을 끼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상큼하다.

찾길을 따라 올라가 다시 정류장 쪽으로 내려와 가든 호텔 뒷쪽 산으로 약간 올라갔다. 중심부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꽤 가난하게 산다. 산 쪽에도 기울기가 가파른 곳에 집을 작게 올려 살고 있다. 빵과 바나나, 라면을 사고 숙소 주변에 왔다. 아직 아저씨집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가 다 안 되어 있고 생선만 구워 놓았다. 어제 생선은 질리도록 먹어서 아침은 포기. 테라스에 모여 컵라면과 빵,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준비하여 출발한다.

배를 같이 탄 가이드는 어제의 오빠들이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 모두들 타지 않을 거라고 좋아한다. 어제 너무 지쳐서 얼굴이 며느리 뒷쪽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파도도 잔잔하여 기막히게 운이 좋은 날이다. 가장 멀리가는 '투어C 코스'이므로 그에게 그토록 거칠던 바다를 오늘은 보드랍게 1시간을 달린다. 가끔 날치류의 물고기가 날고 바다는 잔 파도만 살랑거린다.



첫 섬은 따빠우판 아일랜드와 마틴록 사이의 좁은 지협에 위치한 스노클 포인트이다. 가는 동안 짙은 잉크빛 물색에 모두 감탄을 했는데 그런 물빛이 조금 열어지는 5미터 깊이 정도의 지점에 들어간다. 다양한 색의 산호들과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돌아 다닌다. 어제와는 달리 짙은 잉크빛 물은 옷을 만들어 입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전혀 무섭지 않다. 게다가 잔잔하고 물도 따듯한 편이어서 펍 아름다운 바다를 슬슬 구경하기만 하면 된다. 해안은 엄마를 따라 구경하러 들어 갔다가 해파리의 촉수가 팔을 쳐서 채찍 맞은 듯 부풀어 오르고 피부에서 열이 났다. 청년이 식초를 발라주었다. 물이 깊어 오래 다니지 못하고 돌아 오는데 엄마는 멀리 해안가까지 간다. 얇은 곳은 산호가 더 잘 보였다.

두번째는 이 지협을 따라 가다가 마틴록 쪽의 시크릿 비치에 간다. 책에는 들어가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곳이다. 작은 구멍 안으로 스노클링하며 들어가야 한다. 해안은 안 간다고 해서 청년과 함께 냇이 들어갔다. 물살이 세면 가장자리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구멍조끼를 입어 손이 마음대로 헤엄쳐지지 않아서 조류에 살짝 밀리는 감이 있다. 매우 깊은 곳을 지나면 갑자기 바닥이 울퉁불퉁하면서 얇은 지형이 나타난다. 동그랗고 아담한 장소다. 작은 모래 해변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만나 잠깐 얘기하다 다시 나온다.



섬을 거꾸로 돌아나와 마틴록 아일랜드의 작은 비치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스노클링을 한다. 모래 해변을 살짝만 벗어나면 펼쳐지는 산호들의 군락.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해변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아있는 산호들을 본다. 발에 밟힐 정도로 얇은 곳에 살아 있어서 참 걱정이 된다. 이토록 크고 생생한 녀석들이 몇몇이 살아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베이지색 산호, 연두빛, 보랏빛 산호, 실 처럼 길게 생긴 놈, 해초같은 놈 등 다양하다. 게다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수족관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작지만 파란 형광 발색의 물고기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빨강과 흰색 사이에 검은 띠가 있는 물고기도 많이 보았다. 물 속에 머리를 넣고 나오지를 못하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있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스노클링 만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점심 메뉴다. 대형 참치가 두 마리, 아지가 둘, 돼지고기와 닭이다. 거대한 참치 하나를 남겨서 썬다 (저녁에도 반 밖에 못먹고 개 먹이가 되었다!) 잘 먹고 다시 가자고 재촉할 때까지 물 속의 세계를 들여다 보다 아쉽게 떠난다. 해안을 살살 달래 결국 해안에도 들어갔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지 좀 헤맨다.



섬을 돌아 항구 맞은 편에 보이는 섬의(머리 푼 여자가 한쪽 무

를 세우고 누워있는 듯한 우부공) 만에서 스노클링을 한다. 너무 좋은 것을 보고난 터라 거대한 산호 군락이 죽어 버린 이곳은 마음이 아플 뿐 볼 것은 없다. 한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산호들을 볼 수 있었겠다. 물이 부영게 되어 역시 물고기는 거의 없고 툭툭 쏘는 해파리들이 많다. 마지막은 딜루마카드 섬(일명 헬리콥터 섬, 우리가 볼 때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작은 꼬마 비행기 모형, 남편과 엄마는 아기공룡 둘리가 누워 있는 형상이란다)이다. 3일간 투어의 마지막이라니 아쉽다. 섬의 꼬리 부분의 절벽 쪽 바위를 따라 바다 속이 볼 만하다. 살아있는 놈들은 적지만形形色색, 기기묘묘한 온갖 모양의 산호를 보았다. 제법 만족스런 곳이다. 해안에도 스노클링에 익숙해져서 즐거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얼굴에 자국이 남도록 스노클을 하루종일 꼭 물어서 입안에 부을 정도로 돌아 다녔다. 물론 해파리에도 툭툭 몇 군데 쏘였지만 금방 괜찮아진다.



배를 돌려 엘니도로 무사히 돌아왔다. 샤워와 빨래를 한 후 엄마와 해안은 남편 생일이라고 뭔가를 산다고 나간다.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엘니도 가든 사장님이 오셨다. 직접 우리 테라스까지 찾아 오셨으니 화제만발이다. 해안과 엄마가 저녁밥과 맥주 등을 사왔다. 모두 앉아 얘기 나누며 쥐포에 파인애플 등을 잘 먹었다. 사장님이 가서 저녁으로 밤고구마를 드신다 해서 가져 오시라 부탁했다. 남편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잠시 후 사장님이 오셨다. 정말 밤

같이 딱딱한 맛의 고구마다. 9시 반까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느낀 점은 돈은 없어도 탈이고 있어도 탈이라는 사실이다. 적당히 돈이 있고 쓰는 것이 좋은 거다. 그리고 순간을 즐기는 삶이 최고라는 것,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은 코론으로 가는 배를 탄다. 엄마와 남편은 우리나라로 가기가 싫단다. 여행이 참 빨리 지나갔다고.. 이제 자야 겠다.



■ 2010-1-23(토)

엘니도의 마지막 아침이다. 어제는 피곤했던지 아침에 남편이 깨워서 겨우 일어났다. 전기가 안들어오니 밖이 환해야 짐을 쌀 수 있어 방문을 열어 놓고 정리한다. 빵 가게에서 빵을 사와서 차와 커피를 곁들여 먹는다. 긴 바나나는 한다발에 120 썩이나 해서 사는 걸 포기한다. 뭐 우리나라 바나나 값이 나오냐... 몽키 바나나는 개당 1P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것 그냥 먹거나 구워 먹는다. 배란 다에서 노닥거리다가 녹차를 우려내어 병에 담고 7시 15분에 부랴 부랴 숙소를 나서서 항구까지 걷는다.

오늘은 햇살 작렬이다. 투어를 했다면 뜨거워서 사람 잡을 날씨이다. 아침부터 완전 지지는 느낌이다. 같이 배에 탈 외국인들이 벌써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직원이 모든 짐을 배로 실어다 준다. 항구에는 대형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푸에르토에서 엘니도를 거쳐 코론, 마닐라로 가는 화물선 'Jossil'이라는 이름의 배다. 어디서도 이 배표 파는 곳은 없었는데 혹 잘 찾으면 있었을까. 외국인들도 약간 타고 있다. 남편이 짐을 나르는 선원에게 물어 얻은 정보로는 이 배의 소요시간은 12시간 이란다. 짐을 넣고 빠는 속도로 보자면 시간은 고무줄이 될 듯. 어쨌든 배가 있는데도 모두 비싼 배표 만을 파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탄 배는 'Welia'(30인승 이라는데 외국인만 16명, 선원 6명 정도 승선) 라는 방카 보트로 나름 쾌속선이다. 서로 마주보는 딱딱한 자리로 되어있고 햇볕이 비치는 쪽에 비스듬한 차양을 쳐 준다. 깔끔한 외관과 실내가 나름 고급이라고 해야할까. 구멍조기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스튜어디스가 설명하듯 직원이 모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뭐 비행기 타는 것 같다. 날치, 돌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면 잘 보란다. 바다가 잔잔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도 된다고 한다.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10명. 7시반에 출발한다는 배가 점검을 그제야 시작한다.

늦게 온 외국인을 태워 결국 8시에 출발. 엔진이 거대하고 제법 소리도 조용하다. 선원 중에 한 명이 상당 분량의 쌀과 부식거리를 들고 타는 걸 보았다. 혹시 밥을 주려나? 설마... 표 살 때 아침과 점심은 각자 준비하라고 하더구만... 배는 보드랍게 출발하여 엘니도의 우리 숙소를 지난다. 언제 또 오겠나 저렇게 포근한 집 같은 숙소를... 아름다운 해변을...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바다를 달린다. 외국인들이 슬슬 햇볕을 맞으러 앞으로 또는 배 위로 나간다. 그러니 자리가 슬슬 빈다. 2시간 쯤 지난 후 파도가 살짝 어지럼증을 느낄 만하여 누워 자버렸다.

엄마가 깨워 일어나 보니 글썽 점심을 제공하는 중인 거다! 선원들 끼리 밥 먹는 건 자기 전에 봤기에 "아! 자기들 먹을 밥이었구만..." 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준다. 밥과 콩까지 조림, 오이 등 야채 무침과 약간의 돼지고기이다. 소수의 안 먹겠다는 외국인도 있으나 다들 맛있게 잘 먹는다. 파도가 일렁이는 어지러운 바다에서 밥을 먹으니 꼭 기류가 심해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는 기분. 정신을 집중하여 살살 조심스럽게 먹고 다시 누워 자 버렸다. 1시간 반 정도 잤나.. 남편과 해안, 엄마도 툴툴이 교대로 누워 잔다. 이 배의 서비스 그래도 대단하다. 위로 올라간 외국인을 감시하는 사람(떨어질까봐), 음식 해주는 이, 배 관리하는 사람 등 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좋은 대접을 하려고 노력한다. 뭐 제 값을 하려고 한달까. 게다가 빠르니 가격에 맘 상했던 것이 '괜찮네..'로 바뀐다.

6시간 반 걸려 드디어 코론에 도착한다. 신기하게도 항구 터미

널이 아니라 시내 공영시장 옆의 'Sea diver resort'에 내려준다. 왜 이곳에 내려줄까? 혹 타고 온 배의 주인이 이 숙소의 주인? 외국인들이 드글드글 몰리니 방은 없다. 좀 허름한 곳이다.



빠끼 아저씨를 따라 빠져나가 보니 물 위에 만들어진 바다 위의 집들에서 나온 폐수로 오염된 바다 냄새가 지독하다. 항구 옆 오리엔탈 로지라는 곳의 방값이 1,200인데 별로다. 주변이 번잡하고 지저분한 이 곳을 빠져나가 트라이시클로 론리에 가장 좋게 소개된 '다라요난 로지'에 왔다. 우리는 전통식 방(950)에 엄마는 현대적인 숙소(1400)에 들었다. 내일 우리와 같은 방으로 바꿀거다. 우리는 전통식이 좋으니까... 이 숙소는 커피를 마음대로 타 먹을 수 있고 물도 공짜로 먹는다. 게다가 아침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 다양한 아침을 주문할 수 있다. 시내 구경을 나가서 '코론 아일랜드 투어'를 1인 1,300에 예약했다. 시장에서 수박을 사고 말린 한치 값도 확인한다. 갈 때 사갈 거다. 엄마는 발손질도 받으셨다. 밥집에서 스프링롤과 각종 반찬으로 저녁을 먹고 돌아온다. 이곳에서는 꿀도 팔아서 사갈까 생각 중이다. 숙소에서 항구까지의 거리가 걸어 다닐 만 하다. 코론은 엘니도와 비교할 수 없게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그리고 엘니도 보다 훨씬 크고 규모가 있는 도시이다. 씻고 수박과 커피를 먹은 후(공짜 커피에 모두 만족, 여주인이 타는 법을 친절히 알려 준다. 중국계로 보이는 주인택은 우리 뒷층에 산다) 다시 밤 마실을 나간다. 좀 어둡지만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과자와 술, 꼬치를 사서 돌아왔다. 내일은 7시에 아침을 먹고 투어를 하러 간다. 내일 모레 마지막 날은 아일랜드 호핑을 할지 오전에 온천만 다녀와서 오후에는 사야할 것들을 챙길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 오늘 산 검정 수박은 털 익어 별로 맛이 없다. 약간 돈 아까운 수준. 좀 비싸도 망고나 많이 먹고 갈까.

7. 코론 (Busuanga Is.)

■ 2010-1-24(일)

이 곳의 닭들은 대단하다. 3시반 부터 시끄럽게 울어대 5시는 넘을 줄 알았다. 사실 모기 때문에 더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 냉방을 켜 버렸다. 인터넷이 잘 되니 동생에게 멜이라도 보내야지. 4시 반쯤 자고 6시 반에 일어났다. 7시에 레스토랑에 가니 벌써 어제 주문된 음식이 예쁜 투명 뚜껑에 덮여 나온다. 정통 레스토랑 음식처럼 깔끔하고 멋지게 나온다. 내가 주문한 '피노이'는 반을 갈라 말린 쨌 생선 두마리에 소시지, 보라색 삭힌 달걀(시장에서 볼 때마다 맛이 궁금했다), 아채, 밥이 나오는데 밥도 마늘을 넣어 볶은 밥을 준다. 남편의 '롱실룩'은 소시지 2개, 달걀 후라이, 아채와 밥이다. 엄마의 스페니쉬 오믈렛도 맛이 좋았고 해안이는 가장 비싼(130) 고기 부스러기 류와 달걀 후라이다. 음식이 모두 개성이 있고 이렇게 멋진 아침을 차려 준다는 것이 감동이다. 동원되는 직원만 5명은 된다.

7시 반에 출발하여 투어 사무실에 도착.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8시에 필리핀 연인 한 쌍과 부두에서 출발했다. 배는 훨씬 크고 빠르다. 이 투어는 비싸지만 모든 관광지의 입장료와 음식, 물이 포함되어 있다. 코론섬은 바로 앞에 있다. 처음 스노클링 장소는 작은 일곱 개의 섬이 있는 곳이다. 산호가 많기는 하지만 거의 죽어서 끝만 살짝 빛난다. 물고기는 그래도 좀 있다.



두번째의 끼양간 호수를 가려면 아름다운 코론 섬의 안쪽 바다에 진입한다. 내려서 높은 고개 하나를 꼴딱 넘어가면 넓고 푸른 호수다. 거의 민물에 가깝고 잔잔하며 깊다. 민물이라니 얼마나 반가운지... 게다가 따듯하기도 하다. 맘껏 떠다니고 주위도 살펴보고 모두 만족해 한다. 뭔가 푸근하고 엄마처럼 감싸주는 느낌의 물이 담긴 호수다.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가라는 느낌의 다독여주는 호수... 마음에 든다.



보이는 것은 창모양의 입을 가진 고기들과 다슬기 뿐이다. 가이드 청년을 따라 스노클링을 하며 동굴에도 가본다. 워낙 주변 지형이 뾰족하고 거칠어서 입구가 다치기 십상이다. 아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 물에 떠서 나가지도 않고 엄마는 얇은 곳에 잠수를 해가며 다슬기를 잡는다. 우리나라의 세배 크기 정도로 큰 놈들을 잡으신다. 국립공원이고 외국인니까 함부로 잡으시면 안된다고 조용히 말씀드려도 그냥 대꾸를 안하신다. 나중에 뇌샷냐고 물어도 역시 댓구가 없다. 다시 고개를 넘어 배로 왔다.



세번째 '91 비치'가 점심 먹을 곳이다. 백사장이 깨끗하고 바다는 하얗다. 모든 곳에는 입장료가 있는데 여기도 100 이란다. 참... 무척 아름다운 열대 바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엘니도에 비하면 다 아무 것도 아니구만... 물은 따듯해서 좋아도 오늘은 햇살 작렬이다. 해안은 스노클링을 완전히 배워서 가장 적극적으로 물에 들어간다. 그 다음 적극적인 사람은 남편이다. 식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나도 물에는 들어갔는데 물 속은 그냥 하얀 모래이다. 전번에 나를 물었던 그놈이 역시 나를 살피고 쳐다 보다가 자꾸 공격할 자세를 가다듬는다. 남편이 요놈이 물었던 그 놈이냐고 묻는다. 남편이 관찰한 바로는 자기 보다 큰놈 빼고는 다 공격하여 쫓아 버린단다. 참 어이없는 놈이라 나도 보면 더러워서 피한다. 물리면 아프니까.



잠깐 있다가 나왔다. 해안은 아빠와 방카의 그늘 안에서 계속 놀고 엄마는 또 채집 중이다. 칼로 따개비를 따와 고기 굽는 데서 같이 구워준다. 그냥 짠 조개 맛이다. 심지어 다슬기도 구워 오셔서 깨 먹으려고 돌까지 준비했다가 남편에게 한마디 들었다. 그래도 국립공원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고. 점심은 게, 다랑어 종류의 큰 생선, 닭과 돼지고기이다. 게가 작아도 실하다. 큰 바나나까지 맛있게 다 먹었다.

네번째는 'CYC Is'. 이름은 이상한데 망글로브 나무가 자라는 작은 섬이다. 바닷 속이 야트막하게 널리 펼쳐져 있다.



다섯번째는 트윈 라군이다. 먼저 라군 한 군데에 들어가 배를 대고 대나무 뗏목으로 작은 고개 앞에 내린다. 고개 뒤로 넘어가면 다른 라군이 나타난다. 온도가 다른 물이 섞여 눈으로 보기에 물이 자글자글하게 어른거리는 것이 특이하다. 나는 남고 모두 들어갔는데 물이 어디는 차고 어디는 따듯하고 그렇다. 그런데 밑이 녹색빛으로 어른거리며 깊이가 깊어 아래가 보이지 않아 좀 무섭다고. 남편은 오늘 가본 곳 중 가장 신기한 곳이라고 한다. 작은 고개를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다. 매우 좁고 양쪽의 돌들이 매우 날카로와 위험하기도 하다. 열결에 사진을 찍는다고 카메라 가방을 메고 뗏목을 탔다가 혹시 중심을 잃어 빠질까 걱정이 되었던 곳이다.

여섯번째는 'Twin Peak'다. 해안이가 먼저 들어간다. 히.. 완전 겁이 없어졌네.. 바닷 속의 지형이 직각 절벽이란. 배는 깊은 절벽 쪽에 있고 얇은 곳에 닻을 내린다. 남편이 다녀와서는 거의 죽은 하얀 산호 무덤 속에 끄트머리에 색이 남아 있는 애들과 그곳을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니 참 안쓰러운 느낌만 들더라. 엄마도 오늘은 엘니도에 비해 별 볼 것이 없다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신다. 엘니도를 다녀 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의 호핑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모두 내일은 호핑을 안하는 것에 동의한다. 4시가 넘었지만 당연히 바라쿠다 호수에 가고 난파선을 보러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돌아간단다. 참... 난파선과 바라쿠다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뭐 이런 경우가.. 좀 찝찝하다. 이 호수를 보고 싶었는데. 호수는 까양간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책에는 가는 길이 좀 힘들다고 되어 있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투어가 끝이다. 아니 우리의 이번 여행 중 일일 투어 일정은 완전히 끝났다. 부두에 내려 수박과 망고를 사고 숙소로 왔다. 널 모레면 가니까 비싸더라도 망고는 실컷 먹어야지. 엄마는 옆으로 방을 옮겼고 모두 씻고 빨래. 모여서 과일을 먹고 각자 쉬기로 한다. 카운터에 내일 아침은 6시에 먹는다고 미리 주문을 해두었다. 지프니를 타고 섬의 다른 방향으로 진출해 보려고 한다. 혹시 부수앙가 강에서 카약을 탈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전혀 아니라는 듯 웃는다. 우기에 타는 건가? 부통에서 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일은 먼지도 많이 뒤집어 쓸 것이고 책에서

는 이쪽 지역이 볼 것도 없이 고생 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관광지가 아닌 섬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널 모레 공항가는 배는 8시 30분 출발이다. 45분이 걸린단다. 남편과 나는 다시 마실 나갔다. 역시 항구 주변은 번잡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곳에서 물 위의 숙소라니 전혀 있고 싶지 않다. 꼬치를 사고 돌아와 해안가와 먹었다. 코론을 처음 왔더라면 멋졌겠지만 엘니도 후의 코론은 역시 별로였다. 그래도 호수는 좋았다. 일기 쓰고 폭 자야겠다.



■ 2010-1-25(월)

아침을 6시에 먹기로 하고 어제 주문을 해 놓아서 모두 칼 같이 시간지켜 나갔건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 한다. 엄마와 해안은 체스를 두고 남편과 나는 아침마다 뻘뻘거리며 울어대는 싸움닭 키우는 곳을 구경한다. 넓은 장소에서 한칸씩 자기들의 집을 차지하고 사는 품이 영락없는 닭 호텔이다. 짜식들... 행복하겠다. 우리 숙소 2층에 사는 주인택은 매일 이 닭소리를 듣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자장가 같겠지. 지금 수영장을 거대하게 짓고 있으니 틀림없이 완성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남편이 확인해본 바로는 3월 1일 자로 950짜리 방이 1,100 이 된단다).

아침 먹고 7시 15분에 터미널에 갔다. 아이가 없게도 부수양가로 가는 버스는 아침 10시 반에 한대 뿐이고 내일 아침 7시 반에야 돌아 온단다. 시골 사람들이 장보러 시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개념의 버스이다. 지프니도 여러 대가 있다지만 마찬가지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들이다. 엄마와 해안은 알아서 하루를 보내신다고 해서 돈을 좀 드리고 우리는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사람들이 어찌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보기로 한다.

오토바이를 하루 8시간 500p에 빌려 기름을 100 넣었다. 먼저 핫 스프링의 상태를 확인하여 엄마를 태워다 드리려고 답사를 갔다. 중간에 산책하는 엄마를 만나 집에 가서 온천 갈 준비하고 기다리시라고 했다. 항구터미널을 지나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꽤 멀리 가서야 온천이 나온다. 상상했던 것보다 넓고 깨끗하며 진짜 노천 온천이다. 아주 멋지다. 맹글로브 숲이 지척이고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다. 해안과 내가 못가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숙소로 열심히 돌아 왔으나 엄마는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으셨다. 해안도 마음은 온천에 몹시 가고 싶지만 배가 아파 잠을 자겠다고 한다. 오토바이로 둘이 부수양가 방향을 향해 달린다. 햇볕이 짙할 때 달리는 건 정말 죽음이다. 피부가 많이 따갑다. 그나마 구름 밑에 들어 가거나 언덕의 나무 밑을 지나면 시원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

나 돌아 다니다 햇볕 속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냥 달려다니 정신이 그냥 멍하다. 풍경은 길가에 드문 드문 집이 있는 정도이다. 가끔 개울이 나타나면 좁은 나무다리를 지나야 한다. 별 색다른 것 없는 풍경이 이어져 드디어 둘다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적당한 그늘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버스 정류장 밖에 없다. 다행히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을 발견해서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누워 잤다. 미사 때 말고는 쓰지 않는 곳이라 텅 비어 있다. 30분 정도를 자고 나니 정신이 약간 든다. 성당이라는 곳이 이렇게 고마을 데가 있나..



다시 출발하여 역시 비슷한 풍경을 달린다. 빈투안의 경계를 넘어 좀 가다가 다 똑같고 풍경이 지루하여 되돌아 왔다. 숙소에서 식구들과 움직여서 스파게티나 중국식 면 종류로 점심을 먹고 약밥 비슷하게 쫄면으로 만든 후식과 빵을 먹었다. 엄마가 산책 중 항구 터미널 부근이 한치 1kg에 450을 달라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해서 나와 엄마를 태우고 그곳에 갔다. 흥정하여 1kg에 400씩 3kg와 옆집에서 꿀 5kg를 600에 샀다. 남편이 둘을 다 태우는 것은 균형잡기 어렵다고 나를 먼저 태워다 주고 엄마를 모시러 갔다 왔다. 한치는 깨끗하게 말렸고 짜지도 않다. 다만 꿀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남편이 인터넷의 제스트 에어에 들어가 제대로 출발하는지 확인

을 해보더니 시간이 11시 45분에서 1시로 연기 되었단다!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선과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단 제스트 에어 사무실로 갔다. 막판까지 스틸과 써스펜스?

막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던 직원에게 내일 인천까지 바로 연결하여 간다고 하니 우리 이름과 숙소를 적고 가면 점심 먹은 후 상황을 다시 알려 줄테니 3시 쯤에 오라고 한다.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숨 자고 있는데 해안인지 누구인지 자꾸 문을 두드리러 댕구도 안하고 계속 자려고 했다. 안 가고 계속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제스트의 직원이 와 있다. 세부 퍼시픽에서는 시간이 아슬아슬하여 안된다고 한 모양이다. 우리 표는 환불해 줄 터이니 에어 필리핀으로 내일 아침 8시 반 것을 끊으러 가자고 한다. 결국 1인 1212p 프로모션 가격으로 끊었다. 표 끊는 직원이 우리 이름을 두 개나 잘못 쳐서 제스트 에어 직원이 항공사에 전화로 이름이 잘못되었는데 괜찮냐고 양해까지 구해 가면서 이 표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제스트 에어 표의 환불은 며칠 걸리니 나중에 확인하란다. 얼마나 친절하고도 고맙던지... 제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끝까지 좋아진다. 몇 시간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런데도 잘 기다려 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 참 친절하고 사람이다. 국내선과 국제선 표를 연결하여 바투 끊은 우리의 실수도 큰데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니 큰 은인이다. 숙소에서 와서 숙박 계산하고 댕 출발 시간을 6시로 바꾸었다. 아침식사를 먹을 수 없겠다고 말을 하니 친절하게도 5시 30분에 도시락을 준비하겠다고 주문을 받아갔다. 이 숙소에 대한 이미지도 끝까지 좋다.

다시 나가서 통닭을 사다가 숙소에서 두고 코론의 산쪽 마을을 감돌아 달려 오토바이를 반납했다. 산쪽은 경지도 좋고 잘사는 집이나 숙소들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끝나서 둘이 노천 바에서 맥주도 마시고 꼬치도 먹고 남편이 가고 싶어하던 국수집에서 볶음국수와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다. 약밥과 계란파이를 사고 들어왔다. 모여서 닭과 과일을 먹고 짐 싸기 시작. 큰 덩치의 꿀을 나누어 담는 것이 숙제였는데 해안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주방에서 칼대기를 빌려왔다. 작은 페트 병에 나눠 담는데 꿀이 부글거리며 넘쳐서 고민하다가 마개를 꼭 막으니 다시 꿀의 형태로 가라 앉는다. 넘치

는 것은 좀 흘러 버렸는데 아깝다. 왜 여기 꿀은 부글거리며 올라 오는지 신기하다. 남편 배낭에 한치며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깔고 짐을 썼다. 내일 먹을 물 만 나가서 더 사왔다. 낮에 바나나도 사다 놓았으니 내일 하루는 그럭저럭 도시락 챙겨준 것과 같이 먹으며 해결 해야겠다. 이제 정말 가나 싶은 생각이 든다.

■ 2010-1-26(화)

어제 8시 반에 잠을 잤는데도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아직도 배에 탄 듯 살짝 어지럽고 어제 오토바이 때문에 일사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하다. 감기도 걸렸다. 여행 말미여서 긴장이 풀렸는가 보다. 3일째 있다 보니 이제 닭 소리도 거슬리지 않는다. 얼른 준비를 하고 엄마방에서 남은 망고를 먹고 돌아와 누워 있었다. 도시락은 5시 45분에 준비해서 보내준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참 훌륭한 서비스이다. 6시가 약간 넘어 밴 기사가 왔다. 깨끗하고 좋은 밴이다. 이미 한 명의 외국인이 타고 있다. 기사 아저씨는 빨리 떠나지 않고 온 마을을 몇 번 돌며 사람들을 태운다. 정말 마음이 불안한 것이 이리 노닥거리다 가도 되는 건가 싶다. 6시 20분에 마을을 떠나 공항으로 간다. 어제 우리가 고생하며 오토바이로 햇볕 속에서 달렸던 길을 편하게 간다. 갈림길에서 공항 쪽으로 우회전하여 접어들자 잠시 후 산길이 나타난다. 산을 넘어 넓은 벌판에 이르렀다. 내륙에 이처럼 멋진 초지가 있다니... 부자의 사유지 인가보다. 풍경이 동물만 풀어 놓으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비슷하다. 아마 이래서 부수양가의 북쪽 섬에 사파리 할 수 있게 동물을 풀었나 보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동물들이란다. 이곳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길은 때로는 비포장이고 공사 중이라 살짝 옆으로 우회하기도 한다. 공항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는 오지이다. 집 한채 없다. 공항 가까이 이르러서야 소를 잔뜩 가두어 둔 곳이 보인다. 낮에는 소들을 풀어서 풀을 뜯도록 하나보다.



공항에 우리가 처음으로 도착했다. 내륙 고지인지라 서늘해서 긴 팔을 꺼내 입었다. 공기가 상큼하고 주변에 공항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밖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따뜻한 밥도 좋고 도시락이라서 마치 기내식을 먹는 것 같다. 짐을 검사하고 들어가는 곳은 신기하게도 대나무로 짠 대에 올려 놓고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뒤진다. 아예 전기를 이용한 시설은 없다. 이름이 두 개나 잘못 되었지만 어제 제스트 에어 언니가 전화를 해준 덕분인지 대충 보는 건지 그냥 통과다. 마닐라에서 손님을 싣고 온 비행기는 잠시 후 다시 손님들과 짐을 싣고 10분 일찍 출발한다. 잠깐 잠든 사이에 벌써 마닐라에 도착. 겨우 9시가 넘었다. 짐도 10분 만에 찾아서 맡길 곳을 물어 보았으나 없단다. 아마 테러 때문에 짐 맡기는 곳을 없앴나 보다.

짐을 모두 가지고 미터 택시로 'Mall of Asia'에 갔다. 다행히도 이곳에는 공짜로 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짐 없이 다니니 얼마나 편한지. 스포츠 용품점에서 해안이 바람막이 점퍼, 엄마와 나의 신발 그리고 목걸이 등을 샀다. 해안이는 배가 아파서 아빠가 데리고 내려가서 1층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와서 먹었던 음식점인 'Mangan'에 갔다(어떻게 우연히도 여행의 처음과 끝을 이곳에서 보내고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지... 마닐라에는 그만큼 갈 곳도 없고 시간 보내기에 이곳이 가장 시원하고 편해서

그런가 보다). 20일이나 있었는데도 음식을 주문하자니 처음과 마찬가지로 막막해서 그림을 보고 골랐다. 오늘은 비싼 장어요리를 시켰는데 역시 맛이 좋다. 잘 먹고 슈퍼에 가서 갈 택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털어서 썼다. 과자와 초콜릿류를 산다. 미터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200을 달란다. 올 때는 90도 안 나왔는데 돈이 100 밖에 없다며 내린다고 하니 미터를 꺾는다. 100 이 넘으면 공항이 용료를 할어야 하는데 그러면 복잡하게 달러를 또 환전해야 한다. 기사는 일방통행이라 가는 길은 다르다며 100 이상은 나온다고 한다. 마음이 조마조마 한데 근근이 국제공항 앞에서 95가 된다. 그런데 입구에서 택시를 세워 죄다 뒷 트렁크를 열고 살핀다. 내릴 때 딱 100 이 되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아저씨에서 100 밖에 없어 더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음 부터는 공항에서 남은 돈을 처분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추지 말아야지. 세부 퍼시픽에서 짐을 부치고 표를 받으려는데 진행이 어찌나 더딘지 서서 1시간을 기다렸다. 공항이용료도 750이나 한다. 들어가 봐도 모든 것을 모아 놓은 콩알만한 면세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뭘 공항이용료는 그리 비싼지. 돈은 다 써서 전체 여행경비는 기념품 포함 1인 129만원 정도가 되었다. 절반 이상이 항공료에 배값이고 숙박비도 비쌌다. 인천공항에 내려 짐을 찾으면 10시가 넘을텐데 언제 집에 들어가고 치우고 자냐... 게다가 짐은 얼마나 추울 것인가.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얼마 후 추운 나라로 돌아 간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

